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5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성북동에게 / 최성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자본과 개발의 밀물 속에서도 그대
거대한 도시 서울에 홀로 서있으라

마을 밖에서는 재빠르게 변화의 시간이 흐르고,
탐욕이 집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마침내는
인간마저 송두리째 먹어치우는 시대

작은 골짜기 손바닥만한 동네에
멈춘 듯 그대 서 있으라
비탈과 골목과 이웃이 어울려 빚어내는
낯은 것의 아름다움을 그대, 간직한 채 남아있으라

하나쯤은 시간을 거슬러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쯤은 세상과 멀찌감치 떨어져 살아가는 것도 있음을

그대를 통해 느끼리니
오래 그대로 견디며 서 있으라,

성북동이여

* 표지 글씨는 성북구 평생 학습관 수련생인 박중순, 전현숙님께서 쓰신 글을
집자하였습니다.

차례

- 1p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 5p **성북동의 가로수**
특별 기고 / 전영문
- 17p **홍대부고 언덕 마을의 일상**
특집, 골목 이야기 3 / 글 김기민, 그림·사진 김철우
- 33p **길상사 꽃 공양**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 / 최성수
- 35p **길상사에서**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 / 시와
- 37p **길상사를 찾아서**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 - 답사기 / 박진하
- 52p **고즈넉한 성북동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북악 하늘길 산책로**
성북동의 아름다운 길 / 오예주
- 61p **북정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연극 연출가
‘서울 괴담’ 대표 유영봉**
성북동의 예술가들 / 김현주
- 74p **노릇노릇프로젝트 보고전
명사와 동사 사이의 아포리즘**
갤러리 17717 한장 스케치 / 정원철
- 80p **헤아리고 생각하는 ‘혜음한복’**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김혜진
- 87p **새벽을 여는 사람,
홈 베이스 마켓 배달원 박희빈씨**
성북동의 이 사람 / 장영철
- 92p **성북동 사람들의 영원한 모교 성북초등학교**
이태훈
- 98p **성북동의 새로운 이웃사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성북동, 곧 만나러 갈게요 / 서선원
- 103p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손거부**
이태준
- 115p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천 회원 모집 안내
- 116p **마을 잡지는 마을의 힘으로!**
광고 안내
- 117p **편집 후기**
- 120p **성북동 디미방에서**
기획 광고



특별 기고

성북동의 가로수

전영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간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생태계를 벗어나 인공생태계를 형성하여 왔다. 도시생태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규모의 인공생태계로서 자립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와는 달리 비생물적 요소들이 주로 분포하는 곳이다. 도시생태계 속에서 가로수는 생명적 공간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생물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생물적요소가 빈약한 도심지 내에서 생태계서비스(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 기후안정, 공기정화, 토양침식 방지 등)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선상 연결 녹지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로수(街路樹, street tree)는 시가 및 강변지역 등의 가로와 노변에 줄지어 심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법적으로는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다. 가로수의 역사는 서양의 경우 고대 이집트를 시작으로 그리스, 중동지역 등에서 무화과나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아몬드 등이, 동양에서는 중국 주나라, 진나라, 당나라 등에서 복사나무(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이 식재되었다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조선조 초에 각 역로(驛路)의 거리별(10리 또는 30리)로 이정표를 나타내는 나무를 심도록 하는 후수(楸樹)가 그

시작이었으며, 1453년(단종 1년)에는 서울 교외 도로 양편에 소나무, 배나무, 밤나무, 회나무, 버드나무 등을 심고 보호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정조 때에는 수원 북문, 즉 장안문에서 북쪽으로 향한 도로 양변에 나무를 심게 하였는데 그 때 가로수로 식재된 소나무들이 현재 일부 남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의미의 가로수가 심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895년(고종 32년) 내무아문(조선 말기 내무행정을 관장하던 부서)에서 도로 좌우에 나무를 심도록 각 도에 공문서를 보낸 것에서부터 유래하며, 신작로라는 이름의 넓은 길이 뚫리면서 가로수에 적합한 양버즘나무, 양버들, 미루나무, 툼리나무 등이 수입되어 식재되기 시작하였다.

가로수는 가로 및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를 비롯하여 여름철 쾌적한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신선함 제공, 태양 복사열 흡수에 의한 기온 조절 및 도시 기후 조절 효과, 수관의 가지와 잎이 먼지와 분진을 흡착하고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대기오염을 정화, 토양안정화에 따른 토양 침식 방지, 그리고 방음 효과 등에 대한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통로로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가로수의 수종 선정은 위의 여러 기능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용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나 지역별 기후와 입지환경의 차이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대륙별로 식재되는 주요 가로수종으로는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은행나무, 버드나무류, 회화나무, 녹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류, 칠엽수 등이, 유럽에서는 플라타너스, 피나무류, 포플러류, 칠엽수 등이, 북미지역에서는 단풍나무류와 플라타너스가, 그리고 남미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야자나무류와 유칼리류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가로수로는 칠엽수(마로니에), 은행나무, 플라타너스(버즘나무, 양버즘나무), 백합나무(툼리나무, 목백

합) 등이다.

우리나라 도시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이 두 수종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벚나무, 히말리야시다, 수양버들, 은수원사시나무, 포플러,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등이 주요 식재종 들이다.

성북동지역의 가로수는 성북동의 주요 도로인 성북로(한성대입구역~우정의 공원)을 따라 형성된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인도변에 주로 식재되어 있다.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는 한성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성북로길 초입(신한은행 성북동지점)에 이르는 0.7km의 거리에 분포한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종로구 혜화동과 인접하여 있는 한성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성북동 주민 센터 사이의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에는 수고 14~16m 범위의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다.

4~5월에 본 플라타너스는 가지를 전지당하여 앙상한 줄기만 남아 많이 안쓰러웠는데 어느새 탄탄해 보이는 근육질 몸매에 녹음이 더해져 도로 한가운데를 도열하여 늘어서 있는 모습이 늠름해 보인다. 플라타너스에는 아시아산과 미국산, 그리고 잡종플라타너스인 런던 플라타너스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서양 가로수의 시초였으나 지금은 동양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 넓게 식재되고 있는 가로수의 왕으로 되어 있는 나무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는 줄기가 굵고 강인하여 위로 올라가서 잔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진다. 그리고 수관이 둥글고 커서 녹음으로서의 효과, 소음을 약화시키는 효과, 그리고 먼지를 잡아 두는 효과가 매우 크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유명하다. 겨울에 잎이 지고 난후 방울 같은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은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립미술관

SEWING HOUSE 47

47

반면 성북동 주민 센터에서 신한은행 성북동지점 사이에 있는 중앙 분리대에는 복층구조의 형태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다. 상층부에는 수고 7~8m 범위인 느티나무, 중층부에는 수고 3~5m 범위의 감나무, 그리고 수고 1m 이내의 하층부에는 회양목을 중심으로 남천과 철쭉이 띄엄띄엄 분포한다. 한편 하층부 식재 수종들 사이사이에는 강아지풀, 개망초, 메꽃, 가중나무, 명아주, 원추리, 왕쑥배, 서양민들레, 애기똥풀, 팽이밥, 쑥, 꽃마리 등이 “잡초”로 취급되어 언제 뽑힐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가슴을 졸이며 잠시 터를 잡아 살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한 느티나무는 귀목, 규목, 괴목, 정자나무 등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 은행나무와 함께 1,000여 년을 헤아리는 노거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의 동구 밖에는 정자목(亭子木)으로 한두 그루 거수(巨樹)가 심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신목(神木), 영목(靈木)으로 받들어 숭배하고 신성시하였다. 수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부한 녹음으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철에는 황금색이 나는 노란색이나 밝은 붉은색의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 공원수, 가로수, 녹음수, 기념수 등으로 즐겨 심고 있으나 대기오염에 취약해 낙엽이 조기에 지는 단점이 있다.

한성대입구역과 성북동 주민 센터 사이 도로변과 인접한 성북파출소 성북1치안센터 앞에는 수령 약 61년, 수고 8~9m 범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7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3~4년생의 느티나무 묘목을 전해주어 식재된 것으로 현재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감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만 있는 온대 과수로서 밤, 대추와 함께 빠뜨릴 수 없는 제수(祭需) 품목이며 꽃감은 염색용, 홍시, 꽃감, 잎, 감꼭지 등은 민속식 뿐만 아니라 감미료와 약용, 그리고

재목은 고급 가구재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등 우리 생활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감나무는 가을이 되면 붉은 감 열매와 붉은색에 노란색이 섞인 단풍이 풍성하여 감 주산지인 상주시, 청도군, 영동군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감나무 가로수 길들이 조성되어 있다. 성북동에서도 성북구의 대표나무인 감나무가 가로수로 더 많이 식재되어 까치밥의 추억과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성북동지역에는 넓은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색다른 길이 있다. 성북동주민센터 도로 맞은편 성북로 10길 초입부에 위치한 “참나무담나라” 가게에서부터 시작되는 인도는 성북로 14길이 시작되는 “성터갈비집”까지 2차선 도로만큼이나 넓어 은행나무, 주목, 느티나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나무를 둘러싸고 나무 벤치가 구비되어 있어 도심의 작은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을 걸을 때면 웬지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발걸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그것은 아마도 넓은 인도와 가로수가 주는 넉넉함이 서려있어서이지 않을까? 비록 공간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유럽의 인도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인지 인근의 술집들에는 가게 안에 빈자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가로수를 벗 삼아 술잔 기울이기를 기꺼이 즐겨 한다.

나 또한 6월 중순의 늦은 밤에 막걸리 잔을 앞에 놓고 식당 밖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의 소리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의 모습을 한동안 아무런 상념 없이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다.

식당 ‘디미방’의 사장님은 성북동의 1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경관이라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고 나 또한 동조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모습은 지금도 내 마음 한 구석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성북초교 삼거리 이후에서부터 좁아진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없다.

다만 도로 양쪽에 늘어선 집들에 심은 소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향나무, 황매화, 라일락, 목련, 잣나무 등의 조경수들이 가로수 몫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성북구립미술관을 지나 쌍다리 앞에 이르면 가로수가 허한 길들을 보충해 주려는 듯 녹음으로 가득한 북악산의 전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느끼면서 이러한 감정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으로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길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콘크리트나 벽돌담과 같은 인공물들에 마삭줄, 등나무, 담쟁이덩굴, 능소화, 나팔꽃, 수세미오이 등 덩굴성 식물로 초록의 옷을 입히면 어떨까? 또한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는 키가 작은 나무와 화초류를 식재할 수 있는 통나무 화분들을 설치하거나 집 앞에 작은 화분 하나 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성북동은 북악산 동북쪽 사면으로 흘러내린 골짜기에 자리 잡은 고을로서 성곽 북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군사조직인 어영청의 북둔(北屯)이 주둔하였던 곳으로 북둔의 북송아꽃(北屯桃花)는 예로부터 꼽아주던 경승의 하나로 지금은 복사길이란 이름이 남아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복사나무(복숭아나무)는 잎이 지는 작은키나무로서 중국이 원산지인 과수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신선이 먹는 선과(仙果) 또는 악기(惡氣)를 쫓는 주술적인 나무로 신성시하였다. 우리나라에 복사나무가 도입된 것은 약 2,000년 전으로 보고 있으며 삼국시대 이후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재래 과일나무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복사나무를 보는 우리의 민속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귀신을 물리쳐 주는 신목(神木)으로 믿어오고 있다. 가로수로서 복사나무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시대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 동양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로수는 매연이나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하고 생육에 필

요한 빛, 수분, 양분 등이 부족하기 쉬운 입지에 식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종을 선정할 때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형, 수종의 크기, 잎의 크기와 색깔, 그리고 지역적, 역사적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향토 수종의 식재를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성북동에 산재한 한옥들과 인접한 북악산과 조화를 이뤄 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성북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함과 친근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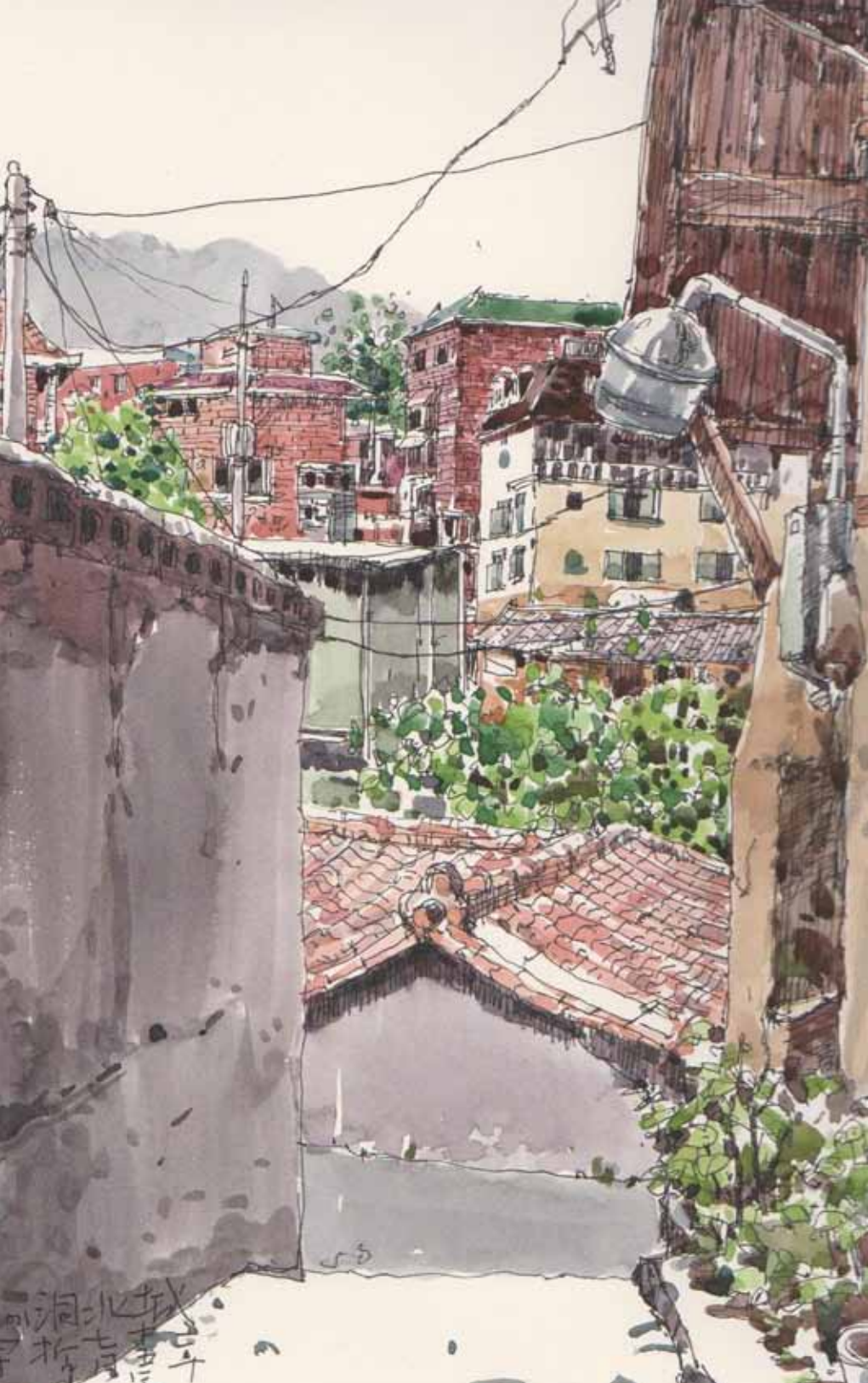
물론 가로수를 선정하는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특히 점점 심해지는 도시의 대기오염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복사나무와 감나무는 성북동에서 역사적, 지역적, 전통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대기오염에 취약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악산과 인접하여 있는 성북동지역은 공기청정도가 서울에서 최고 수준인 곳으로 측정된 바 있어 이들 수종들을 가로수로 검토하거나 확대하여 식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로수는 딱딱하고 단조로운 도시의 일상에서 지루해지기 쉬운 도 시민들에게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가로수는 온 몸으로 태양빛을 막아주고 아스팔트 도로 위의 이글거리는 열기를 받아 주며 도시인들에게 청량감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도심의 에어컨이다. 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자. 그리고 성북동의 멋을 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함께 꿈꿔 보자. 봄에 연분홍의 아름다운 복사꽃이 피고, 한 여름 연붉은 색깔의 탐스런 복숭아열매가 달리는 복사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걸으며 도화골 계류변에서 “삼배통대도(三杯通大道) 일두합자연(一斗合自然)”이라며 자연과 벗삼아 풍류를 즐겼던 옛 선인들의 정취를 아련히 떠올려 볼 수 있는 때가 오기를…. 

-

전영문은 식물생태학을 전공하였으며 송광생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의 아고산대가 분포하는 지역(설악산,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을 대상으로 식물군락(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의 생로병사(生老病死),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보존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집, 골목 이야기 3

홍대부고 언덕 마을의 일상

글 김기민 / 그림·사진 김철우

북악산 자락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언덕과 그 사이의 골짜기로 구성된 성북동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가파른 오르막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성북동에서의 오래된 삶이란 대부분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당신이 하늘 가까운 언덕 꼭대기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 높이에 비례하는 긴 세월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왔던 분들을 만나기란 어렵지가 않다. 홍대부고 후문 언덕에는 삼십 년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삶의 상당 부분을 하늘 아래 가파른 땅에서 보낸 분들의 단단한 삶이 북악산 자락 밑에 움트고 있는 바위처럼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 동네에서 몇 년을 살다 노모의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 평지로 내려온 김철우 선생님과 함께 젊게는 환갑을 넘기고 많게는 여든도 넘긴 어르신들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언덕 위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러 어느 토요일 늦은 오후 언덕을 올랐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느라 가슴은 쿵쿵쿵쿵 뛰고 땀이 뻘뻘 흘렀지만 올라온 사람이 그러든 말든 늘 그 자리 그곳에 가만히 있을 뿐인 언덕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모든 것이 태평스러웠다. 마을의 공터 한 귀퉁이에 놓인 원통 위로 1.5리터 플라스틱 페트병 소주에 생선과 콩 통조림을 안주 삼아 소박한 술상이 차려졌고, 그 주위로

모여 앉은 어르신들은 옛 이웃과 처음 보는 이웃을 반가이 맞아주셨다. 그 환대의 분위기 속에서 술잔과 젓가락 몇 개 더 놓는 건 일도 아니었다.

공터는 동네에 들어오려면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길목이라 그곳에 앉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짧은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맞이하고 또 환송했다. 마을 아래 평지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언덕에 다다른 주민들이 공터로 마실 나온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풍경은 그곳만의 고유한 모습인 동시에 마을이란 정체성을 갖는 동네라면 어디를 가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며 우리가 서로 아는 그 자리에는 비록 두서는 없었지만 놓쳐선 안 될 맥락이 있었다.

동네살이 : 봐 줄 수 없는 것

어르신들에게 소박한 음식은 얼마든지 봐 줄 수 있지만 성의 없는 음식은 봐줄 수 없다. 생선과 콩 통조림에 두부 한 모로 차린 술상은 정감 있지만 코가 하나도 시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기까지 한 고추냉이 소스로 버무려진 양장피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단 무지와 양파, 춘장, 그리고 서비스로 곁들여진 군만두 찍어먹을 양념장조차 빼먹은 건 도저히 봐줄라 해도 봐줄 수가 없다. 동네 사람 상대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봐줄 수 없는 건 이렇게 단 양장피는 양장피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향해 우리 가게는 유명하며,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먹는 맛집이라며 옹수하는 음식점의 태도다. 정말로 그곳이 유명한 맛집일 수도 있고, 그 달큰한 양장피 맛에 환호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코가 시큰할 만큼 얼얼한 고추냉이의 매운맛을 기대하는 어르신들의 기호



가 대중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그 맛을 못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빈말이라도 다음엔 맛나게 해드리겠다며 송구스러운 척 할 수도 있는 게 이번 한 번 보고 말 게 아닌 동네 장사의 수완이 아닐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북동 곳곳에 뿌려진, 어디 있는지도 모를 외지 음식점의 판촉 할인 광고 전단지를 애써 무시하고 동네 가게에서 시켜 먹어야 한다면 할인 행사 하는 음식점에 비해 가격도 더 비싼데 개의치 않고 부러 주문을 넣은 동네 주민의 입장에선 그게 못내 아쉽고 섭섭한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서 보이는 자세가 뻔히 동네 사는 사람인 걸 알면서 쉽게 장사하려는 것만 같이 여겨져 야속한 것이다. 그 마음을 음식점 주인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어르신들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어 버럭하는

마음을 끝내 참지 못하는 것이다. 뭘 또 그렇게까지 할까 싶다가도 끝내 봐줄 수 없었던, 봐 넘기지 않았던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나는 한 편으론 이해하고 말았다.

동네살이 : 봐줄 수 있는 것

초저녁부터 이미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어르신이 계셨다. 밖에서 해매고 계신 것을 보고 동네로 들어오던 다른 어르신이 택시에 태워 모셔 왔는데, 흥에 겨우셨는지 아니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을 만나 반가우셨는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셨다. 어렸을 적 꿈이 가수였으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가족을 모두 잃고 평생 꿈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동석했던 마을 어르신들께선 이미 익히 듣고 또 들어 거의 외울 정도가 된) 이야기를 나는 어르신 옆에 앉아 가만히 듣고 또 들었다. 동네 분들은 다들 열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으셨고, 배달 주문했던 양장피가 도착한 뒤 사람이 늘어 좀 더 넓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주셨고 소싯적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배달된 양장피가 입에 맞지 않다고 하자 한 어머니는 집에서 꽃게탕과 우거지된장무침, 밥을 가져와 식탁을 풍성히 채워주셨고 젊으니까 많이 먹으라며 특별히 고봉밥을 퍼주셔서 첫 술을 뚝 떼는데 옮긴 자리로 함께 오지 않고 혼자 계셨던 어르신께서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의 노래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서운하셨는지) 성큼 다가와 역정을 내며 밥상을 뒤엎는데,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 상황에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을 법도 한데 신통방통하게도 아무렇지 않았다. 동석했던 다른 어르신께서 젊은 사람 앉혀 놓고 험한 꼴 보였다며 송구스러워 하셨지만 참 희한하게도 랜스레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마을잡지에 실을 어

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밖에서 찾아온 어느 청년이었다면, 뒤엎어진 밥상 옆에서 밥과 국, 반찬을 뒤집어 쓴 다음에는 웬지 나도 이 동네의 이웃이 된 것처럼 거리감이 확 좁혀졌던 까닭이다.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남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었다면 아마 나는 몹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처음 뵈고 인사드린 나도 이럴진대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이웃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마을 주민들은 말해 뭐할까. 당장은 화도 나겠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일이 오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또 마주할 것이다. 결국은 거리와 시간, 그리고 관계다.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서로 마주하며 오래도록 함께 해왔느냐가 마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이를 가늠하여 보여준다. 멀면 멀수록, 함께 나눈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와 가족이 때때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부딪히고 갈등하는데 주민들은 옆집, 건너집 사는 이웃들과 한 동네 살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쩌면 서로 들어맞는 것보단 맞지 않는 게 더 많았을 그 오랜 세월 볼 거 못 볼 거 다 봐가며 동고동락해온 이웃들은 가족들의 관계가 그러하듯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쌓인 세월과 정 앞에서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인 것처럼 함께 만들어진 역사의 폭과 깊이 앞에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였다.

공터 : 마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홍대부고 언덕 마을은 위로는 대사관로가 있지만 도로와 마을 사이를 산비탈이 가로막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과 바깥세





何明湖北村
2014年10月

상은 성북로에서 갈라져 언덕까지 이어진 길을 통해 들고 낚이 술하게 반복되어 왔다. 덕분에 성북로8 다길의 끝은 주차장을 겸한 마을의 공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주민들은 자투리땅을 이용해 텃밭을 가꾸 농작물들을 기르기도 했으며, 공동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에 둘러앉아 술잔을 주고받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별 거 없는 빈 공간이지만 별 게 없기에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가며 소일하고 담소 나누며 일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음을 공터가 있는 마을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알까? 알 수 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모여들어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소식을 전하거나 듣고, 그 대화 속에서 상호간의 잉여나 부족을 확인하면서 때때로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다. 광장, 시장, 공원 따위의 것들은 공터에서 알음알음 일어났던 활동들이 확장되면서 나타난,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인 결과물이다.

유감스럽게도 괴물 같은 도시라 비난받는 서울이란 도시 공간 내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화가 부단히 진행되어왔고, 자연 발생적 공터들은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소거되거나 쉼터나 놀이터 등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활이 축적되지 않은 임시적 공간들로 대체됨에 따라 지금의 광장과 시장, 공원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들이 태반이다. 게다가 그 대체된 공간들에 역사가 채 쌓이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떠밀려 쫓겨나고, 심지어 그 임시적 공간마저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대체되기를 반복하는 도시에서 공터의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찾기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 마냥 뜬금없고 바늘구멍에 낙타를 밀어 넣는 것처럼 힘겨운 일이 되고 말았다.

물이 굽이쳐 흐르다가도 때때로 고이며 천천히 흐르듯, 사람이 살고

지나가는 곳 또한 그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자연스레 멈춰 서서 쉬어 가는 곳이 있기 마련이지만 서울의 공터들은 대개 생뚱맞고 뜨악하여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가 않다. 일찍이 사람들은 제아무리 노는 공간이 널려 있어도 푸근한 맛이 없는 곳에서 쉬이 늘어지지 못했고, 여기서 쉬라고 명해진 곳에서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조직되는 만남들은 공터의 본질에 반할 수밖에 없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함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세상이 확연히 달라졌으므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겠지만 그 본질에 역행하여 너와 나, 우리들의 머무름이 자연스레 일어나지 않는 곳을 과연 우리는 공터라 부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공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주택들의 집합체를 우리는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대부고 언덕 마을과 그곳의 중심에 자리한 공터는 ‘그 때가 참 좋았지’와 같이 단순히 옛날 옛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오랜 거주,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얹히고설키며 엮이고 꼬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 공터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그것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갈음할 수 없다. 그 대체 불가능성이야말로 공터의 진정한 의미이자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마을의 본질이 아닐까?

곰실마트 (성북로8길 14, ☎765-7253)

홍대부고 언덕 마을로 올라가는 오르막 초입에 위치한 작은 동네슈퍼. 이곳을 지나면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적잖





은 편의를 제공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벽찬 주민들에게 곰실마트의 배송 서비스는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

* 근처에 좀 더 큰 규모의 슈퍼마켓으로는 삼성할인마트가 있고, 이곳 또한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성북로6길 26, ☎ 742-8811

허물어져 가는 주택들

재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된 이래 오랜 세월 방치된 홍대 부고 언덕 마을의 주택들은 제대로 보수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노후도가 몹시 심해 거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방치된 빈집의 증가는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도시가스 설치되지 않았거나 상하수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

김기민은 '성북동천'의 총무이며, 마을 활동가다. 성북동을 사랑하고, 성북동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낼 날을 꿈꾸는 성북동 주민이기도 하다. 한때 운영하던 카페 '티티카카'를 접고, 지금은 그 공간을 '동네공간'이라는 마을 공간으로 운영중이다. 다음 호부터 본지 편집위원으로 함께 마을 잡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철우는 화가이며 '성북동천' 대표이다.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을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공간이기를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

길상사 꽃 공양 / 최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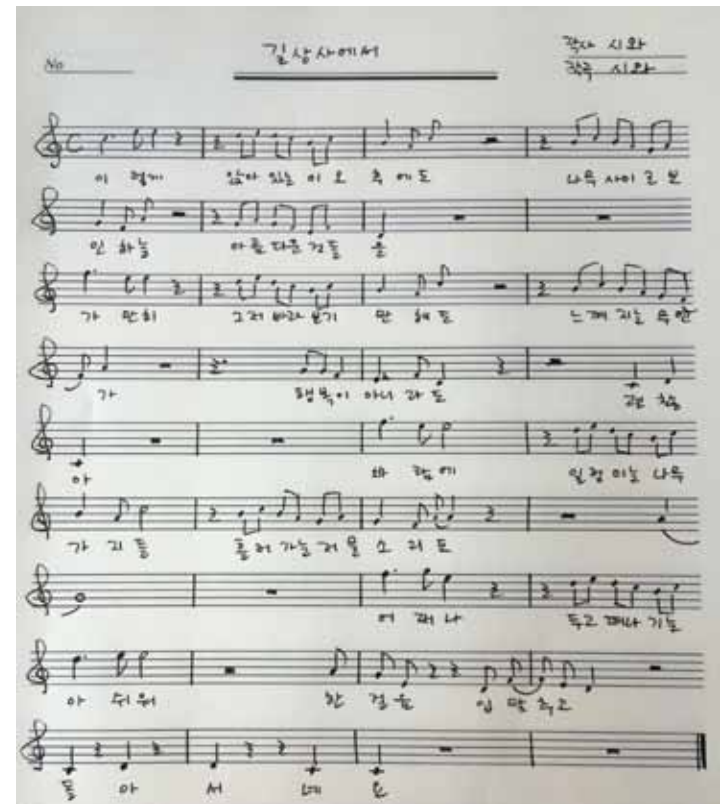
길상사에 점심 공양 갔다가
산수유 꽃그늘에 핀 노루귀에 홀려
공양 시간을 놓치고 말았네
둘러보면 곳곳에 피어나는
복수초, 처녀치마, 깽깽이풀
십 년간 돌봐 이렇게 꽃자리 일궜다는
길상사 보살님 웃음이 꽃처럼 곱네
저리 어린 생명 돌기에
십 년은 그저 숨 한 번 몰아쉬는 찰나일 뿐
길상사 꽃 공양에 홀려간 시간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나날도
꽃 잠시 피었다 지는 봄날 하루 같은 것
그 꽃들 보느라
이승의 공양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네

-

최성수는 시인이며 청소년 문학 작가이다. 그동안 시집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하루>, <꽃, 꽃잎>을 냈으며, 청소년 소설 <비에 젖은 종이 비행기>, <꽃비>, <무지개 너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성북동에 50년 가까이 살며, 성북동이 사람들의 행복한 꿈을 담아내는 터전이기를 꿈꾸고 있다.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 길상사에서 / 시와



시와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로서 인생을 살다 포크 가수가 된 뮤지션이다. 그녀는 교사시절에 정신지체아들을 가르치며 음악치료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직접 음악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다가 전업가수가 되었다. 그녀는 현재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한 포크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립영화 OST 음악감독으로도 이름을 알리며 영화음악 분야에서도 알아주는 뮤지션으로 통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노래하고 있는 멋진 가수이다. 이 악보는 본인이 직접 쓰고 그린 작품이다.

길상사를 찾아서 / 박진하

도심 속 사찰이라 뭔가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성북동이라면 그도 괜찮다 생각하는 이가 많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동네에는 크고 작은 절이 많다.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길상사다.

성북로 큰길을 따라 가다 선잠단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나아간다. 가는 길에 천주교 성당이 보인다. 마침 석가 탄신일이라 축하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다.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런데 부착한 단체명을 보니 불교단체가 아닌 성북동 성당으로 되어있다. 종교간의 화합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환해진다.

그 현수막을 뒤로 하고 비탈진 경사로를 올라간다. 똑바로 구획된 도로가 아닌 좌우로 뒤틀리며 만들어진 길은 좌우에 뺨뺨하게 주차된 차량만 없다면 마치 도시 속에서 시골길을 걷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할 정도다.

드디어 길상사의 일주문이 보인다. 도로에서 조금 뒤로 후퇴해 설치된 커다란 단청 문이 방문객을 반겨준다. 보통은 맛배 지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큰 팔작지붕을 두 겹으로 쌓아 올렸다. 사실 이 사찰은 처음부터 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정을 개조하여 산사로 건립한 것이다.

무소유라는 책을 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준 법정 스님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성북동에는 군사 정권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요정이 두 개나 있었다. 그 하나는 삼청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원각이다.

대원각의 주인은 진향이라는 예명을 가진 기생이었다. 가난에 내몰려 나이 열여섯에 기방에 입문한 것이다. 그러다 함흥에서 운명적으로 천재 시인 백석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더 애절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에게 월북 작가 백석은 상허 이태준만큼이나 낮이 설었던 적이 있었다. 그를 한국 문단에서는 고독한 천재 시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불운의 시인이라 평하기도 한다.

또 이런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백석 시인은 묻혀 있는 존재다. 일제 말기 펴낸 시집 <사슴>은 당대 문단의 충격이었다. 북부 지역 사투리에 담은 향토적 감수성과 정갈한 시어는 독자를 사로잡았다. <사슴>은 발간되자마자 이내 동났다. 당시 학생이었던 시인 윤동주는 <사슴>을 구할 수 없어 시집을 빌려다 손수 베껴 간직했다고 한다. 시인 김기림은 <사슴>을 가리켜 ‘문단에 던진 폭탄’이라며 감탄했다. 백석은 김소월과 더불어 북방의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됐다.”

백석과의 인연을 간직한 채 진향은 서울로 와 요정을 만든다. 1955년, 당시 배밭골이라 불리던 성북동 인근의 2만 평 대지를 매입했다. 매입가만 무려 650만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650만원을 마련해 어렵사리 땅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로 인해 생긴 빚을 17년간이나 갚아야 했다. 필요할 때마다 땅을 떼어 팔다보니 2만평 부지가 어느새 7000평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드디어 이 땅에 목조건물을 짓고, ‘대원각’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을 열었다. 1970년 삼청터널이 개설되고 성북동이 개발되면서 대원각에는 고위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정권의 중심에 선 이들은 대원각의 밀실에서 향락을 즐기며 정치적 만남을 가



極樂殿

졌다. 대원각은 한식당의 외관을 갖춘 요정이었다.

1970년대 밀실 정치가 극에 달한 무렵에는 삼청각, 청운각과 더불어 삼대 요정으로 명성을 떨쳤다. 권력가나 재력가가 아니면 문턱조차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대원각의 위세는 대단했다. 대원각이 요정 정치의 대명사로 권력의 중심에 머물던 시기, 그녀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 무렵 그녀는 돌연 대원각 운영을 접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대원각은 이경자라는 40대 여사장이 임대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다. 1983년 2월경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 일간지에 이경자 사장이 조세법 위반 및 탈세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일제히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후 풀려나 대원각을 고기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요릿집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대원각은 당시 최고급 요정으로 이름을 떨쳤다. <한겨레> 1989년 9월3일치 2면을 보면 대원각 이경자 사장은 88년 전국 소득 순위 76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73위였다.

1991년 12월, 이경자 사장은 여중업원에게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되게 된다.

한편 이 요정의 실소유자인 김 영한 여사는 1987년의 어느 날,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읽다가 불현듯 대원각을 시주해 사찰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법정 스님이 말하는 “아무 것도 욕심내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에 깊이 매료된 것이다. 대원각은 당시 시세로 무려 1천억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지인이자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보살의 주선으로 법정 스님과의 만

남이 이루어졌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원각을 시주할 테니 도심 속 열린 사찰로 만들어 스님이 관리해 주세요.”

법정 스님은 “일평생 주지 같은 일은 맡아본 적도 없을뿐더러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며 일시에 거절했다. 대원각을 사이에 둔 법정 스님과 김 여사의 줄다리기는 거듭 이어졌다. 그리고 꼬박 10년이 지난 1996년, 법정 스님은 비로소 그녀의 청을 받아들인다. 대원각을 시주받아 청정도량으로 변모,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근본도량으로 삼자는 이들의 요청을 따른 것이다.

그렇게 술과 고기, 성과 향락, 밀실정치의 대명사였던 대원각은 청정도량 ‘길상사’로 탈바꿈했다.

1997년 2개월간의 공사 끝에 절편한 놀이공간이던 대원회장은 설법 전으로, 본채는 극락 전, 고기냄새와 음악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열린 시민 선방으로 거듭났다. 한복 곱게 차려입은 기생들의 숙소는 수행하는 스님들의 요사채가 됐으며, 기생들이 옷을 갈아입던 팔각정은 불음을 전하는 범종각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찰이 길상사다. 그런 내력이 있어서인지, 건물 자체만 본다면 절이라기보다는 요정에 가깝다. 그러나 일주문은 도량의 출입구이고 세속과 출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던 만큼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나 보다. 좌우 측면에 부조로 새겨진 해조관음상이 보기에 좋다. 일렁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두 관음의 모습이 아름답다.

일주문과 이 건물의 본채인 극락전은 일직선상에서 벗어나 있다. 옆으로 빗겨 나가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돌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커다란 마당이 놓여있다. 석가 탄신일에는 야외 공연장으로 사용될 만큼 넓은 공간이다. 지난 초파일에는 명상 음악가인 김영동의 무대가 꾸



머지기도 했다. 어두운 밤을 밝힌 조명 속에서 듣는 그의 음악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작은 감동의 파동이였다.

전면에 선 건물이 극락전이다. 전체적으로 “H”자 구조인 이 본채는 양 측면을 길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에 아미타 부처를 두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나무아미타불”의 주인공인 그 부처이다. 이름만 불려도 평안해지고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극락전 앞 쪽으로 범종 각이 있으며 커다란 종루를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에서는 “이 종소리를 듣는 이들이여, 평안을 이루소서.”라는 글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찰의 전신이 요정이었던 만큼 단청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일하게 일주문과 범종 각만큼은 여러 색상을 화려하게 입힌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은 요정에서 사찰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종각 옆 좁은 길 건너편으로 조그마한 관음보살상이 보인다. 어찌 보면 성모 마리아 상처럼도 보인다.

이를 조각한 작가가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이다.”라며 종교의 화합을 말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작게 만들어졌는데, 나름 이유가 있다. 대개 불상의 형태가 커질 적에는 종교의 힘이 정치권력보다 약할 때라는 것이다. 속이 허할수록 겉을 포장하려 한 이유다. 고려 후대로 와서 불상이 커진 것도 그러한 결과였다고 한다. 길상사의 작은 반가사유상을 보며, 이렇게 작은 불상을 만든 마음이 바로 지난날의 위대한 불상 예술을 다시 새롭게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 옆으로 또 하나의 불상이 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숨씨처럼 선 하나를 그어 눈썹을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선 두 개를 모아 눈을 그렸다. 다 이런 식이다. 이를 조각한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깨달음



의 세계는 이와 같이 단순함과 치졸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른 쪽 눈 밑에 그려놓은 눈물 한 방울은 어떤 의미일까?

설법 당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길상 7층탑이라고 명명한 석탑이 보인다. 이 또한 종교 화합의 상징이다. 이 탑은 기독교인이 기증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 네 마리의 사자상이 떠 받치고 있는 석탑은 웅장함보다는 상승감이 강조되어 있다. 늘씬한 몸매와 높은 키가 마치 모델의 신체 비율을 닮아 있다. 이 석탑은 법당 출입구 옆에 비치된 마루 위에 앉아 감상하면 제격이다. 그 위로 나무로 만든 썸 루프가 있어 비가 오는 태양 별이 내리 쬐든 관계 없이 편안하게 쉬며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려 하는 7층탑의 자태를 만끽할 수 있다.

극락전과 설법당 사이 길을 걸어 오르면 ‘맑고 향기롭게’라는 단체의 사랑방 지붕이 보인다. 현대식 건물이다. 그야말로 기기묘묘한 건물이다. 그 지붕부터 특이하다. 8각 지붕인데 또 동서남북의 4모서리를 잘라 12면체를 이루고 있다. 아니 1층 현관 위에는 4면체의 돌출부를 추가하여 기하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출입구 설계는 더욱 재미있다. 이 건물이 비탈진 경사면에 세워진 사실을 적극 활용하여 1층에서도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길에서도 곧장 2층으로도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금 오르면 일반인들이 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선방과 선원이 보인다. 각 선방을 통하는 출입구도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자연석들로 디딤돌을 놓아 만들었다. 가장 높은 건물은 법정의 진영각이다. 진영각을 끼고 내려오면 스님들의 선방이 여기저기 앉아있다. 개울 물 너머 산재된 공간은 일반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드디어는 침묵의 방에 도착해서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선방을

만나게 된다. 그 방의 구조는 너무 단순하다. 격자창 2개가 있어서 선방에 앉아 밖의 경치를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든다. 누구든 들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와를 이용해 만든 담 벽도 아름답다. 또 다른 화강석과 황토흙으로 만든 담장 위로는 가는 나무를 엮어 만든 통풍구가 있다.

경내를 둘러 한 바퀴를 다 돌아온 기점에는 벽돌을 이용해 만든 반월문(半月門)이 있다. 출입문 위로는 학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 위로는 기와지붕이 올라서 있다. 즉 극락전을 향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곳이 요정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장소이기도 하다. 오른 쪽 밑에는 찻집과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지장전이 위치하고 있다. 법정의 책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서적이 비치되어 있다.

답사를 마치고 극락전 앞뜰에 놓인 바위 의자에 앉아 백석이 그의 사랑, 진향을 생각하며 지었다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읊어 본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 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
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나는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폭폭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 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내가 버리는 것이다.

눈은 폭폭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는 밤이 좋아서

웅양웅양 울 것이다.

함박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이곳을 찾아 소주 한잔을 들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남긴 후일담을 듣고 싶다.

후에 길상화 보살이라는 법명을 얻은 백석의 여인 김영한은 임종을 하루 앞두고 길상사를 찾았다고 한다. 오랜 병환으로 지치고 노쇠한 모습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정갈한 한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법당을 참

배하고 천천히 경내를 둘러본 후 경내 자신의 처소 ‘자야오당’에 누웠다. 그리고 “죽은 뒤 반드시 화장해서 눈이 많이 오는 날 길상사 경내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뿌려 달라는 그의 부탁은 백석과 흰 당나귀를 타고 눈이 폭폭 쌓이는 밤, 뱀새 우는 산골로 가려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시와 길상화가 남긴 길상사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 우리 성북동 골짜기에 고요히 내려와 세상을 살며 생긴 피로를 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

박진하는 성북동의 명소인 작은 식당 ‘디미방’의 주인장이며, 요가와 명상 전문가다.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성북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성북동의 멋과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성북동 사람이다.



성북동의 아름다운 길

고즈넉한 성북동 풍경을 바라볼수 있는 곳,
북악 하늘길 산책로

오예주

코스 : 삼청각 ~ 숙정문안내소 ~ 숙정문(북대문) ~ 말바위 ~
와룡공원 ~ 성북동쉼터(약 50분 소요)

성북동에는 간송미술관, 심우장, 길상사, 최순우 옛집, 수연산방 등 근현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많다. 그 중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한양도성 성곽길이다. 북악산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산책로는 등산보다는 산책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등산화가 아니라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북악산의 공기와 분위기에 흠뻑 젖으면 지치고 힘든 일상의 피로가 말끔히 힐링되는 그런 곳이다.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천도를 위하여 먼저 궁궐과 경복궁 종묘 사직단을 건립한 다음 곧바로 정도전이 수립한 도성 축조 계획에 따라 수축하기 시작한 서울성곽이다. 이 성곽은 북악산~낙산~남산~인왕산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고 숙정문(북대문), 흥인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의 순서로 축조하였다. 정도전은 전국에서 19만 7,400여명을 동원, 한양도성을 세우기 시작해 약 3개월 만에 완성하였고, 그 후 27년이 지나 다시 대대적인 보수 확장을

했는데, 세종 때인 1422년에 벌인 대공사에는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가 872명에 달했다고 하니 엄청난 희생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워진 서울성곽은 260년간 크게 훼손되는 일 없이 잘 버티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일부가 헐려 나갔고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의 평지 성곽이 모두 철거되었다가 현재 다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성곽 길을 걷는 일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일까? 성벽을 한층으로 집을 짓고 사는 북정마을을 볼 때나, 전망대에서 고요함이 있는 성북동을 바라볼 때 더욱 그렇다.

삼청각 ~ 숙정문

소개하고자 하는 성북동 북악하늘길 산책로는 먼저 삼청터널 건너기 전에 있는 삼청각 옆 숙정문으로 향하는 산책로에서 출발한다. 맑은 청이 세 개라는 뜻인 삼청각(三清閣)은 이름 그대로 도심에서 가장 맑은 기운을 지닌 곳으로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남북 적십자 대표단의 만찬이 열렸던 역사적 장소이다. 현재는 서울시가 인수하여 한국의 풍요로운 전통문화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산책길로 들어서서 상큼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5분쯤 오르막길을 걷다보면 숙정문 안내소가 나온다. 숙정문에 가려면 이곳에서 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고 통행 패찰을 교부받아 목에 걸고 휴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구간은 통행 제한시간도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출입할 수 없다.

여름철(3~10월)은 9:00~16:00, 겨울철(11~2월)은 10:00~15:00의

시간대에만 통행이 허용된다. 숙정문의 위치가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줄기에 있는데다가 최근까지 군사보호지역이었다가 최근에야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숙정문의 본래 이름은 숙지문(肅智門)이다. 한양도성에는 공자의 보편적 가치관이기도 한 인의예지신이라는 오상의 뜻에 따라 동서남북과 중앙의 상징적 건물에 각각 이름을 만들어 붙였었다.

북쪽에 해당하는 글자가 지(智)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북대문에도 이 지(智)자를 사용하여야만 했었다.

그러나 왕의 통치를 위해 지(智)자 대신 ‘청(淸)’자를 쓰고 엄숙하다는 뜻을 가진 문자를 앞에 붙여 “숙청문”이라 하였다가 어느 때인가 정(靖)자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숙정문의 안내판에 보면 본래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서울성곽 동서남북에 4대문의 격식을 갖추고 비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평소에는 굳게 닫아두어 숙정문을 통과하는 큰 길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미 태종 때부터 북은 음(陰), 남은 양(陽)이라는 음양설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북문인 숙정문은 풍수 지리적으로 음기가 강한 곳이어서 항상 문을 닫아 두었던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정월 대보름 전에 민가의 부녀자들이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액운이 없어진다.”라는 풍속이 있다고 전하고 있고, 순조 때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伍州衍文長箋散稿)』에 보면 숙정문을 일러 “양주 북한산으로 통하는 숙정문 역시 지금 폐문하고 쓰지 않으니 언제부터 막았는지 알 수가 없다. 숙전된 바로는 이 성문을 열어 두면 성 안에 상중하간지풍(桑中河間之風)이 불어댄다 하여 이를 폐했다 한다.”라고 되어 있다. 상중하간지풍이란



부녀자의 음풍, 곧 풍기문란을 뜻한다.

앞서 말한 액땀과 관련하여 『이규태의 600년 서울』을 보면 “이 풍속은 비단 정월 보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중 내내 언제라도 세 번 왕래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성안 여인들이 모여들면 북문은 꽃밭이 되고 꽃보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라고하여 자연히 건달이 모여든다는 뜻으로 숙정문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문이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산과 종묘의 주산인 응봉을 잇는 산마루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이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두 산을 밟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문을 닫았고, 또 지형 상 이 문보다 창의문이나 혜화문을 통하여 서북쪽과 동북쪽 큰 길로 나가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규태의 600년 서울>에서

말 바위 쉼터 ~ 성북동 쉼터

성곽 길을 지나 말 바위 쉼터까지는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계단길이다 성벽을 따라 잘 다듬어진 길을 걸어 말 바위 쉼터에 올라가노라면 성북동의 고즈넉한 아름다운 마을 모습에 그 모든 수고로움을 고스란히 잊게 되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말 바위 쉼터에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성북동 마을의 정취와 북악산 능선 따라 이어져 있는 성곽과 시원한 바람에 마냥 취해 있다가 발길을 돌려 성북동 쉼터로 하산하면 된다.

이제 곧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면 꼭 한번 북악하늘 길 산책로를 걸으면서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성북동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시길 바란다. 

-

오예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서 살기도 했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성북동을 떠나 살지만, 여전히 성북동으로 돌아와 살 날을 꿈꾼다.



성북동의 예술가들

북정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연극 연출가 ‘서울 괴담’ 대표 유영봉

김현주

성북동에 언제부터 어떤 인연으로 살기 시작하셨나요?

성북동에는 2002년부터 살았어요. 전라도 시골에서 살다 일본에서 10년 정도 유학생생활을 하고 서울에 자리 잡은 첫 번째 동네입니다. 홍대 쪽으로 갈지 대학로로 갈지를 두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 성북동으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술(공간연출)을 공부하고 개인 작업이나 공동 작업이나의 갈래에 섰었는데 공동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되어 연극을 택했죠. 성북동은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또 유명하다보니 좋더라고요. 성북동은 그렇게 우연히 흘러들어왔어요. 서울은 잘 몰랐지만 웬지 성북동에 ‘미래’나, ‘대안’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괴담은 거리예술로 출발을 했어요. 거리에서 게릴라적인 형태의 공연, 어떤 공간을 일시점거(?)하고 공연하는 것이 초반 작업의 형태였는데 공연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에서 그 장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했습니다. 그 지점이 공연보다 가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성북동, 내가 사는 곳에 눈을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았어요. 디자인적인 도시의 형태도 그랬고 특히 북정마을 같은 재개발되기 직전의 그런 집들, 지금은 다 허물어졌지만 성곽을 벽 삼아 집을 짓고 살

던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 공간에 터를 잡는 과정에 활용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삶과 환경과의 관계를 반영해 스스로 본인들의 집을 디자인하는 것 같았고 그것이 올바른 디자인인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사는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나 했을 때 저 뿐만 아니라 동료든 이웃이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성북동은 나름 디자인이 잘 되었습니다. 또 그 가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북동에서 지내면서 사람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가 힐링이 되었던 거죠.(웃음)

그런 집에서 성북동은 본인에게 어떤 마을인가요?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역과 이웃에 관계를 안 맺었을 땐, 즉 성북동에 살면서도 관계를 안 맺으면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언젠가 대학로나 극장만 왔다 갔다 했던 힘들었던 시절에 동네 산책을 하며 북정마을을 만났는데 그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이웃과의 관계나 살아가는 방식이 여유 없이 사는 도시,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들이었어요. 모든 일은 자기가 사는 그 곳에서 일어나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도 마을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직장의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영감을 얻고 실생활이나 일에 대한 공부가 되었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성북동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북동에 지내면서 삶이나 작품 활동에 영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

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모델이 되는 예술가도 많고, 예를 들면 이태준 선생님이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처럼요. 그 장소에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동경하는 예술가인 경우도 많고요. 주민으로서 내가 여기 계속 살 것을 생각하노라면 마을에 대한 애정도 생기기 마련인데 다른 동네에 비해 그런 것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기 살면 굶어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거리들이 생기기도 하고 외롭지 않은 거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줄 사람들도 있고요.

대표님 사시는 집이 봉 펜션이라고 주변 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망이 진짜 좋아요.

성북동에서 추천할만한 본인만의 명소나 혹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을까요? 성북동은 역사적인 공간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의 역사적인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보다 성북동 마을 잡지에 소개되었던 문방구나 이발소랄까, 주민들의 이야기랄까 그런 삶의 공간과 이야기들에 대해 관심이 더 많습니다. 추천할만한 장소는 너무 많은데 생활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좋아해요. 성북동은 박물관처럼 무언가 박제화된 그런 곳보다 생활감이 넘치는 그런 곳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정마을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냥 공간에 들어와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게 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북동 곳곳의 골목들을 좋아하는데 바깥 사람들과 공유하고 가꾸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꽃집의 화분을 길거리와 인근 상점 사람들과 함께 넣어놓고 가꾸는 것처럼요. 성북동에는 추천할만한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북동에 동네 친구들도 많이 계시죠? 다들 예술가들이신가요?

대부분 예술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처음에 이사 와서 떡을 돌렸었는데 아직도 옆집 아주머니와 음식도 나눠먹으며 살고 있어요. 마을에 있으니까 친구들의 연령대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60대이신 분들과 형님하면서 지내기도 하고(웃음).

앞으로는 성북동이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지요?

여기서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원래 사시던 분들이 살기 좋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과 엄청난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저처럼 여기가 좋아 외지에서 들어와 새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데 그런 것에서 생기는 벽이랄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곳, 그리고 같이 공유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마을의 평상처럼 혼자만이 것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같이 사용되고 나누게 되는 공간들, 정서적인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에서의 예술 활동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시는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자면 공유될만한 것들이 알고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칠순잔치'라는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칠순잔치처럼 우리 인생의 통과의례들이 이벤트 홀 같은 연결고리가 없는 어떤 공간 같은데서 한번 하고 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 자신의 역사를 공유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그 가치를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을이나 누군가의 삶을 풍자, 예찬하며 우리 삶이 공연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것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습이야'라고 공유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또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공감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에서는 어떤 예술 활동들을 하셨는지요?

서울괴담으로 북정마을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기이한 마을버스'라는 공연을 시작으로 북정마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이 섞여있는 마을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던 공연이었어요. 두 번째 작품이 '오정자'라는 가상의 인물이 북정마을의 가치들을 판타지처럼 풀어내는 '기이한 마을여행 오정자'(2013)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북정마을 사람들'(2013)이 있었고, 또 '북정마을 블루스'(2014)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때부터 우리 극단이 더 이상 멋을 부리지 않기 시작하죠(웃음). 거의 동네사람이 돼서 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춤과 노래로 표현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관계'들이 작품 안에 녹아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공연하는 '칠순잔치'(2015)가 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제 북정마을의 해방둥이인 여섯 분의 칠순잔치를 연극으로 풀어냈어요. 그들의 70평생의 희로애락을 인생의 통과의례 칠순잔치로 풀어낸 거죠.

북정마을에서 많은 작업들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셨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점이라든지 좋았던 기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죠. 우선 저희 극단 단원들에게 고마운 게 마을에 들어왔을 때 잠깐 공연하고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적응이 안 되고 힘든

부분들을 스스로 마을에 관계를 쌓아가며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이 행복한 시기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소품을 같이 만들어요. 소품이든 뭐든 같이 만듭니다. ‘기이한 마을여행 오정자’까진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일부였는데 ‘북정블루스’부터는 마을 분들이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처음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마을사람들이 먼저 물어보셨었어요. 학생이냐고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심지어 저한테도 학생이냐고 물어보셨어요(웃음). 마을 평상 끝에 불편하게 엉덩이만 살짝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하던 것이 점점 더 가까이, 깊이 들어오고 올 때마다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주민 분들과 친해졌고 저희도 마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배추 값이 폭락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밭을 갈아엎는 지방의 어느 배추밭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우르르 내려서가서 배추를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을사람들과 나누고 김장도 같이 했는데 그 과정이 연극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정과 관계 안에서 지혜를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공연함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들이 코디네이터 같은, 단원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꿈을 꾸는 예술가

앞으로도 성북동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공연연출가이자 기획자이자 그리고 성북동 주민인데요. 주민을 갖다 붙이기엔 조금 미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당분간은 공연보다 주민으로서 관계를 더 맺으며 지내고 싶어요. 북정 마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동네에서도 주민들이 같이 체험하고 벽을 허무는 작업들도 하고 싶고요. 성북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유 성북 원탁회의처럼 성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활동가들이 모

여 사업 제안이나 정보를 나누고 실행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활동으로 지역의 다른 예술가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편협한 사고를 가졌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해요. 그런 활동으로 힘을 받기도 하고 경쟁 구도 보다는 공유,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결국은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이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인 것 같습니다. ㉠

-

김현주는 본지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성북동 한 모퉁이에 터잡고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성북동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성북동 사람이다.

갤러리 17717 한장 스케치

노릇노릇프로젝트 보고전 (2015. 7. 20 ~ 7. 31)

명사와 동사 사이의 아포리즘

정원철

나에겐 2009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서서히 증상이 심해 지더니 어느덧 치매를 제대로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에 휴직원을 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그냥 쉬는 안식년제도가 없고, 휴직기간 중 연구 과제를 해야만 하는 연구년 제도뿐이어서 휴직의 규정상 목적과 나의 본래 목적을 합치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전략이 필요했다. 올해 초 노릇노릇 프로젝트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노릇, 자식노릇, 남편노릇, 사위노릇, 선후배노릇, 친구노릇, 선생노릇, 제자노릇, 작가노릇, 전문가노릇 등 숨이가쁠 정도로 많은 역할 중에서 언제나 최우선 순위였던 작가·교육자 노릇과 제일 뒷전으로 제쳐 온 자식노릇을 한데 압축하거나 뒤섞어 보려는 시도가 노릇노릇 프로젝트의 주된 열개이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공동체예술과 관련하여 의뢰 받는 특강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의 한 부분을 자주 인용해왔다. 영화의 주인공 미자에게 알츠하이머 진단이 내려지는 장면인데, 의사는 명사를 잇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동사가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증상의 진전을 예고한다. 그렇게 시작되는 명사와 동사의



중요도에 대한 의사, 환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기대어, 동물적 생존을 넘어서기 위해선 명사가 중요함을, 더 나아가 뻔한 상징으로서의 명사가 아니라 고유한 의미로 새롭게 생성되는 자기경험으로서의 명사가 중요함을, 그것을 위해 예술이 작동해야함을 얘기해왔던 것이다.

영화 속 의사의 통보와도 같이 나의 어머니는 이미 명사를 상당부분 잊었다. 이제는 아들, 딸이라는 피붙이 명칭조차 친척이라는 말로 얼버무린다. 명사를 잊어가는 어머니가 눈에 띄게 집착하는 것은 '때 넘기지 않고 밥 먹기', '개고양이 밥 주기', '화초에 물주기' 등, 이른바 동사적 삶이다. 캠핑카를 마련해 어머니가 좋아하는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함께 보내려던 애초의 계획은 '여행'이라는 명사가 사라진 어머니의 실체를 마주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동물적 생존에 충실한 동사적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집'이기에 '여



행'은 즐길만한 꺼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말과 행동, 생각 등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저장과 재생이 전혀 되지 않는 어머니에게 일상의 매 순간은 낯선 경험의 연속일 터였고,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몇 년째 장기여행 중인 피곤한 여행자인 셈이었다.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동물적 귀소본능이었음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서 둘만의 여행을 기반으로 했던 노릇노릇 프로젝트는 '떠남'에서 '머뭇'으로 자연스레 변경되었다. 하지만 몸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도의 조정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조차 집에 가야한다며 안절부절못하는 어머니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머뭇'이었던 탓이다.

흰 콩과 검은 콩이 뒤섞여 있는 노릇노릇키트는 어머니를 '어머니만의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흰 콩 검은 콩을 가려내 각각의 통에 담으면 되는 단순한 구조지만 웬만한 번민과 불안함은 열전도 못하게 하는, 특별한 힘을 지닌 도구이다. 노릇노릇키트의 마력에 빠져 껍질이 반들반들해질 정도로 콩 고르기를 반복하는 어머니는 하릴 없이 먹고 잠만 자는, 객식구 같은 불안과 초조로부터 금세 벗어난다.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취제처럼 작용한 효과이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어머니는 묻는다.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니?" 갓난아이가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우고 세상살이를 학습해가는 것과 정확히 반대의 순서로 기억과 기능의 퇴화가 진행되는 것이 알츠하이머라면, 나는 어머니를 6~7세 어린아이로 대하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퇴화된 상태와 경험 전의 상태는 같지 않았다. 소통해오던 언어를 잊음과 동시에 그 언어와 함께 자라온 총체적 감각 또한 사라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 머릿속은 도통 해석이 불가능한 혼란덩어리일 것임이 분명하다. 명사로 이해하던 세상에 대한 분별과 가치를 잇는다고 별안간 생존의 몸짓만 남은 상태

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셉 보이스를 극심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면 반 데어 그린텐 형제 어머니의 "...살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은, 여전히 소의 젖을 짜야하고 돼지에게 밥을 쥐여하는 의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진술처럼 나의 어머니는 자신이 여전히 유용한 의무를 지닌 존재이기를 절실히 원한다. 늘 나는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노릇노릇키트를 내밀 뿐이다. 아쉽게도 노릇노릇키트는 그런 혼란상황을 이겨낼 정도의 '쓸모'를 생성하는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손과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잊게 하는 지연의 도구일 뿐이다. 문득 나를 살게끔 하는 의무는 과연 뭘까 생각해 보게 된다. 작가 노릇 교육자 노릇, 소위 명분 있는 역할로 분주히 채우고 있는 내 삶 또한 검은 콩 흰 콩 고르기와 같은 마취효과에 취한 삶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 고귀한 내 숙제는 홀대하는 어머니 속에 있다. 귀히 여기는 것은 홀대함과 같다. 

-
정원철은 홍익미대 서양화과와 독일 카셀대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13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300여회의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7~8년 전부터 '골목에서 주름잡기', '통인시장-꿈해소 프로젝트' 등 공동체미술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헤아리고 생각하는 ‘혜옴한복’

김혜진

가게를 성북동으로 옮긴 건 2013년 겨울이었다. 맨 처음 작업실을 열었던 한성대 근처보다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성북동이 한복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후로 발품을 팔며 열심히 찾아다닌 끝에 지금의 공간에 둥지를 틀고 지내고 있다. 성북동은 지내면 지낼수록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동네인 것 같아 ‘정다운 우리 동네’라는 생각이 든다.

‘혜옴한복’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혜옴’의 의미다. 단어도 생소하지만 발음이 어려워 몇 번이나 반복해 말해줄 때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 ‘혜옴’을 왜 가게 이름으로 정했을까? 가게 이름을 지을 때,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적합한 단어를 찾던 중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혜옴’이었다. ‘혜옴’은 ‘헤다,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생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나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는 옷을 지을 때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원래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에서 쓰이는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고 만들었는데, 이런 의상들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다. 배우가 연기할 때 불편하지 않은지, 조명 아래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무대와 잘 어울릴지, 다른 배역과 어울림은 어떠한지 등등 입는 사람에 대한 헤아림은 디자인 과정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 ‘헤아림’의 의미를 지닌 ‘혜음’은 옷을 만들 때의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혜음한복’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

혜음한복에는 비교적 까다로운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 무대의상을 만든 것이 인연이 되어 찾아오는 배우, 연주자, 창 하시는 분들, 미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컬러와 스타일에 민감하거나 옷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행사를 치른 손님들이 내 한복이 스튜디오 촬영이나 연주 중 가장 돋보였다고 인사를 하면 나는 “이 맛에 한복 하죠” 라고 웃으며 답한다.

한복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 내가 한복을 지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색감이고 두 번째는 태이다. 색감은 한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했던 나는 색감에 굉장히 예민했다. 수채화를 그릴 때 팔레트 위에 풀어진 색을 보고 “예쁘지 않은 색이 없어”라며 색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옷을 보거나 물건을 보면, ‘왜 이 색을 썼을까?’, ‘다른 색이 더 어울릴 텐데’, ‘맞아 이 색도 너무 예쁘지’ 하며 색에 유난히 예민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는 한복을 하게 된 것 같다. 같은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명도와 채도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지, 또 얼마나 다른 느낌을 주는지는 다들 잘 알 것이다. 또한, 노란색과 빨간색도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다. 각각을 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가 매치를 했을 때 서로를 살려주면, 난 마치 천생연분 커플을 발견한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 색을 찾느라 수많은 색을 조합해 본다. 그리고 그 선택한 색이 손님의 분위기와 어울려 빛을 발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한복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색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색들만

을 사용하면 기존의 한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복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색들도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 한복에서 잘 쓰지 않았던 색을 한복에 어울리게 잘 쓰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냥 기계적으로 색을 대충 맞추기 보다는 정말 예쁜 색,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색을 찾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재미있는 과정이고 그 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알기에 색 조합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태’가 나게 지어야 하는 것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 매일 입는 일상복은 어떤 사이즈가 자신을 가장 태나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복은 자주 입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나에게 예쁜 선인지 잘 모른 채 그냥 한복집에서 맞춰주는 대로 입게 된다. 한복은 여유가 많은 옷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여유가 많으면 태가 나질 않는다. 여자의 경우 치마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저고리는 몸에 잘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도 소매가 크고 바지통까지 크면 땀시가 나지 않는다. 즉, 한복의 부피감에도 강 · 약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본인의 체형적 특성까지 반영하면 가장 본인에게 잘 맞는 ‘태나는’ 한복이 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성껏 한복을 짓다보니, 매일매일 이 예쁜 한복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손님의 인사를 받기도 한다. 한복은 상대적으로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아 안타까운데, 요즘 젊은 층에서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가거나 궁에 놀러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니, 한복을 디자인 하는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복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 더 열심히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종종 딸을 데리고 시험 삼아 디자인을 해보기도 하는데, 내 딸은 여섯 살 한복 입히기 딱 좋은 나이이다. 입히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물론, 입는 아이도 너무 행복해 한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초대 받으면 우리 딸은 한복을 입고 간다. 친지 어른들 외에는 한복을 입고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는다. 아이를 위한 한복의 소재는 면이나 모직, 인견 등 다양하게 시도해 보기도 한다. 이 독특한 한복 덕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한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인사하게 되고 또 칭찬 받을 때도 많아서 한복을 입히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복을 입는 요즘의 젊은 층도 나와 같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본인이 돋보이고 더 잘 차려입은 느낌에 기분이 좋고 또 평소애 잘 안 입는 한복을 입으니 재미있어 한다. 이런 유행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모노가 ‘입고 싶은 옷’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복은 여전히 ‘자주 못 입는 옷’, ‘불편한 옷’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모노를 한번 정식으로 입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복보다 훨씬 더 불편했다. 가슴 아래 배 부분을 ‘오비’라는 긴 띠로 많이 감기 때문에 허리를 조금도 구부릴 수가 없었다. 또한 기모노 구조상, 치마 폭이 좁아 종종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 몇 시간 착용만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했다.

이에 비해 한복은 부피감으로 인한 불편함은 있지만 입었다고 해서 심한 피로감이 오거나 하지 않는다. 불편함이 한복을 안 입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불편함이 한복을 안 입는 가장 큰 이유일까? 우리가 드레스를 입을 때 불편하다고 불평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드레스를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감수하고 입는다. 그렇다면 한복도 입고 싶은 옷으로 만든다면 좀 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입지 않을까? 소장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복을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7년, 나에겐 아직도 한복에서 실험해 보고 싶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일상복에서 사용되

는 다양한 패턴의 면과 마 등을 소재로 활용하거나 서양 복식에서 사용하는 라인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느낌을 주는 한복을 디자인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은 한복, 입고 싶은 한복을 끊임없이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것이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꿈이다. 

-
김혜진은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를 졸업한 뒤,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연극 「이(爾)」, 「밀당의 탄생」, 뮤지컬 「대장금」, 「형제는 용감했다」, 「삼천」 등이 있다. 현재는 무대 의상과 한복을 짓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복 만들기 수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그도 운영 중이다.

(블로그, blog.naver.com/hyezzinii 전화. 070-8200-4768)



성북동의 이 사람

새벽을 여는 사람.

홈 베이스 마켓 배달원 박희빈씨

장영철

박희빈씨는 성북동의 대표적인 마트 중 하나인 <홈 베이스 마켓> 성북동점의 배달원이다.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는 그를 우리는 성북동 곳곳에서 자주 마주치곤 한다. 산비탈 골목을 짐을 가득 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마켓 앞에서 부지런히 물건을 나르기도 한다. 그의 손과 발로 우리는 쇼핑한 물건들을 편안히 받아들곤 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루를 사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뭐 인터뷰 대상이 되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맙지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시는 곳은요? 예, 올 해 선돌입니다. 사는 곳은 성북동 1가예요. 나 폴레옹 제과 뒤쪽에 삽니다. 한 7,8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요. 성북동으로 오기 전에는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에 살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명륜동과 성북동은 좀 다르지요?

명륜동은 대학가라서 좀 복잡하고, 방학 때는 덜하지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많아 좀 시끄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뭐 제가 사는 건 그곳이 나 여기나 비슷해요.

성북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홈 베이스 마켓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하고요.

두 가지씩이나 일을 하시는군요. 바쁘게 사시는 게 맞네요. 힘드시겠어요? 뭐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큰 애가 대학에 다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라서 다달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생활도 하가 교육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가진 것이 없으니 몸으로라도 열심히 뛰어야 살지요. 바쁜 게 좋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새벽 3시 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 쯤 보급소에 가 신문을 받아 8시 정도까지 돌리지요. 집에 돌아와서 씻고 아침 먹고, 9시 쯤 마켓에 출근해서 밤 8, 9시에 퇴근해요. 마트 배달은 한 3년 됐는데, 제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니까요. 바쁘고 힘들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도 있으니 뭐 견딜 만 한 셈이죠. 동네 분들이 저보고 열심히 산다고 하시지만, 저야 명륜동에 살 때도 비슷하게 일을 했으니 이젠 몸에 배어있어서 그냥 습관처럼 일을 하는 거지요. 그 정도 일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요. 열심히 산다고 칭찬해 주시면 오히려 부끄러운 걸요.

오늘처럼 비가 오면 신문 배달은 무척 힘드시겠어요?

제가 신문을 7~8년 돌렸거든요. 베테랑이죠, 하하. 제가 여러 신문을

다 돌리니까, 한 16~17종이 되거든요, 분류 잘 해서 오토바이에 싣고 다닌 세월만큼 이력이 쌓여서 그리 힘들지는 않아요. 어느 집에 어떤 신문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 외우니까 눈 감고도 집어넣을 수 있지요. 성북동 꼭대기는 비탈이 심해서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비오는 날에는 비닐로 싸고 포대에 넣어서 메고 끌고 올라가요. 눈이 오면 더 힘들고요, 비가 와도 차라리 여름이 낫지요. 눈이 오면 올라가기 힘이 들거든요.

배달 일을 하시면 많은 주민들을 만나시겠네요. 특별히 인상에 남는 분들이 있나요? 인상에 남는 분이래... 많이 만나긴 하지요. 새벽에 출근하면서 만나고, 저녁에 마트에서 또 만나는 분도 있고 한데,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은 없네요. 다만 명륜동보다 성북동 분들이 더 인심이 좋긴 하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시곤 하지요. 그저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그만큼 대가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죠, 뭐.

어떤 때 보람을 많이 느끼시나요?

제가 지금 성북동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다 시골에 살고 있어요. 제가 2000년에 이혼을 하고 좀 방황을 했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요. 재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기도 했고, 신용불량이 되기도 했지만,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그것도 풀리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더 바랄 게 없지요.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지요.

요즘 성북동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그래요. 가게들도 많이 늘고, 새로 문을 여는 집도 많아졌지요. 주말이면 둘레길 가느라고 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배달을 하다 보면 맛집이나 문화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배달을 하니 골목골목, 마을 모든 곳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주기도 편하고요. 제 직업 덕분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배달하시면 이곳저곳 다 다니시겠네요?

예, 부촌부터 중산층, 서민층 사는 곳까지 다 가죠. 성북동이 다른 동네보다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긴 하죠. 하지만 다 우리 마트의 고객분들이니 그런 것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뭐. 저야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친절하게 인사 잘 하고, 배달 잘 해 드리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마트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모시려고 애쓰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시군요. 주위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박희빈씨가 친절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박희빈씨 목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기운이 샘솟는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쉬실 때는 무얼 하시나요?

우리 신문 돌리는 후배들이나 지국장님과 햄버거 먹으러 가는 날도 있지요. 평일에 쉴 때는 한겨레 신문 명륜 지국장하고 만나 점심을 먹기도 하고, 영화 보기도 하고, 해 떨어지면 술도 한 잔 하기도 하지요. 혼자인 날은 목욕탕에 가고, 염색도 하는데, 사실 혼자 보내는 날은 허전해요. 대개는 나 오늘 쓴다고 문자 보내면 후배들이나 지국장 3,4명은 모여요. 같이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지요. 다른 사람들 보내는 것처럼 휴일을 보내곤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 애들 대학 졸업시키고 나면 한 60 되겠지요. 우리 애들은 엄마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라서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대학 졸업시키면 그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가 그 때 되면 힘들어서 이 일도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얘지요. 아이들도 지들이 취직하면 아빠 용돈 드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누가 자식들한테 기대 살겠어요. 지들이나 잘 살면 되는 거지요. 아이들 잘 키우는 게 목표지요. 다행히 아이들 성격이 밝아서 힘을 내 일하고 있지요. 전화 너머 아이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고, 그런 게 부모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 고마워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도 뭐한데, 저처럼 열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 그래서 전화하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저 행복하게 성북동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하니 저도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

장영철은 본지 편집위원이고 성북동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 때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을 함께 하기도 했으며, 성북구와 성북동의 문화를 가꾸는데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북동 사람들의 영원한 모교 성북초등학교

이태훈

매일아침 운동장을 들어서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날 맞이하는 학교 교정을 보면서 가물가물한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떠오른다. 난생처음 짝이 된 여자아이와의 재미난 대화로 행복에 젖어있던 무렵 너무 떠든다는 이유로 짝이 강제 교체가 되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 대성통곡했던 일학년 어느 날이 기억난다. 또 키 큰 거인 아이가 같은 반이 됐다는 소문에 호기심으로 두근거렸던 이학년, 짝 사랑했던 짝꿍을 이유 없이 괴롭혔던 삼학년, 예쁜 아이에게 관심이 커져가며 다양한 경쟁의식 속 소심한 아이였던 사·오학년 시절도 떠오른다. 나는 이렇게 초등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고학년이 되면서 공부 잘하는 애, 잘사는 애, 잘 생기고 예쁜 애, 싸움 잘하는 애.... 서로를 그렇게 구분 짓고 그 안에서 무언가로 소문나고 자리 잡힌 자기 역할을 하며 사회성을 키우며 나는 조금씩 성장했다.

나는 전교생 소풍에서 오락시간 사회를 볼 정도로 전국구 까불이였지만 또 한 편으로는 한없이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어린아이였다. 그런 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선생님은 너무 가혹했다.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눈물을 흘려주시던 선생님도 계셨다. 그런 어린 시절 많은 기억들이 교정과 함께 떠오른다.

서울에서 성북 초등학교만큼 백 퍼센트 그 동네아이들로 구성된 토박이들만의 초등학교가 있었을까? 같은 동네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만나 육년 동안 인연을 나눴던 우리 동창들은 졸업과 함께 흩어져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인생길을 씬 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흘러버린 삼십오년의 세월과 함께 이제 한 대학생의 학부모가 되어 버렸다. 그 긴 세월 속 많은 만남과 인연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성북초등학교로 모인 우리 동창들의 모습은 마치 산란을 위해 고향산천의 냇가로 모여든 연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났듯 못났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개의치 않고 만나 어린 시절 순수했던 우정을 되살리고, 서로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이런 우리 동창들의 공통된 기억의 중심에는 두말 할 것 없이 성북 초등학교가 있다.

수줍음도 많고 어리석었던 초등학생 우리들의 옛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누가 누구를 좋아했었느니”, “누구는 그때 참 어땠느니” 그땐 정말 몰랐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북초등학교는 정말 드라마틱한 연극이 펼쳐졌던 유년기 시절의 소중한 무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중고교를 남자학교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었기에 더 소중한 여학생들과의 마지막 기억들도 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야릇한 설렘으로 꺼내보는 일기장 같은 추억이 된 그 기억의 장소 역시 성북 초등학교다.

압도적인 인기로 전교 퀸 이었던 그 여자아이의 집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된 사실만으로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었다. 영화 ‘천녀유혼’ 속 지옥마왕의 결혼행렬에 나오는 아리따운 신부 왕조현의 모습처럼 슬



서울성북초등학교



로우 모션으로 그 아이가 복도에서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장면은 강렬한 환상으로 육학년의 기억이 되고 말았다. 졸업식 날 전교 부회장으로 온갖 상을 다 휩쓸었던 그 아이, 호명될 때마다 다소곳이 치마를 정리하며 서고 앉고를 반복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기억되는 아련한 내 지난 짝사랑의 연극무대가 바로 성북 초등학교 교정이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그 친구가 뺨짝이 의상을 입고 동창회에 나타나면 과거의 스타에 대한 예우로 전 남자동창들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치곤 한다. 그 기억 속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행운 또한 성북 초등학교가 있기에 가능한 것 같다.

이제는 스스로없이 예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인상을 무섭게 써서 말도 못 붙였다고 웃는 그 친구를 보며 “하긴 내 인상이 강하긴 하지” 생각하면서도 마치 피천득 선생의 소설 ‘인연’처럼 “만약에…” 하는 흐릿한 생각도 하곤 한다.

성북동에서 태어나고, 어느덧 오십 가까운 세월을 성북동에서 살아 온 토박이에겐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 나의 모교 성북초등학교다. 돌아보면 이제는 참 많이 변하긴 했다. 하지만 산동네 드센 아이들의 주먹질에 또 부잣집 아이들의 돈 자랑에 치이기도 했고, 일찍 찾아온 사춘기 내 마음을 몰라주던 여자아이의 매몰참에 좌절하기도 하고, 군국주의식 교육의 잔재가 남았던 교사들의 혹독한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지만, 그런 우여곡절 속에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북 초등학교를 떠올리며 나는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아침 이 교정에서 동네 축구 동호인들과 왁자지껄 공놀이 한판으로 나의 일과를 시작한다.

가을이면 운동장 위에 푸르게 펼쳐진 넓은 하늘을 까맣게 메우던 잠자리 떼들에 가슴 설레어 누구노래인지도 몰랐던 유행가 ‘고추잠자

리’를 멋모르고 따라 부르던 기억, 낮선 곳에서의 보이 스카우트 유년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푸근함으로 날 맞아주던 고향 같은 따뜻함을 내게 늘 선사하던 그런 곳이 성북초등학교였다.

이동이 잦은 현대인의 거주 패턴을 고려했을 때 시골도 아닌 서울에서 이처럼 고향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교육, 부동산의 투자가치 등 많은 걸림돌이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날 수 없게 하는 마음 속 큰 고목나무인 성북초등학교는 늘 새롭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내 사랑하는 고향산천의 모교 인 것이다.

나의 모든 유년시절의 기억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이곳 성북초등학교는 어쩌면 매일 아침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지키는 마을입구 장승 같은 것이 아닐까?

축구를 마치고 빠져나가며 바라보는 모교의 교정은 맑다. 내 모교는 오늘도 꼬맹이들과 함께 무척 바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수많은 기억의 무대역할을 했었듯이 우리들의 이세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을 여전히 안겨주고 있을 테니 말이다. ☞

-

이태훈은 성북초등학교 34회(1976년 입학) 졸업생이다. 약수동에서 태어났지만, 난 지 6개월 때부터 출근 성북동에서 성장했다. 지금은 성북동 이웃 삼선동에서 살지만 성북동을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성북동, 곧 만나러 갈게요

성북동의 새로운 이웃사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과거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의 만남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의 만남은 20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혜화동에는 연극을 보러 오는 것이 전 부였었는데 그 해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 소아암 치료의 역사는 그 어떤 연극의 스토리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환자 지원과 가족 프로그램이 전무하던 1991년,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의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소아암전문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혈병어린이후원회라는 작은 묘목이었지만, 2000년에는 재단법인 설립으로 제법 큰 나무로 성장하여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아암은 매일 4명씩 진단받아 연간 1,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이가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감기로 아픈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크게 아픈데,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암을 아이가 갑자기 진단받고 투병해야 한다면

그 마음과 짐은 경험하지 않으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인 제가 이제는 매년 1,500여명의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아암 어린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 성북동과의 만남 준비

현재는 혜화로타리 부근에 제2의 재단 사무실을 임대하여, 미술치료실, 놀이치료실, 그리고 작은 프로그램실을 마련하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2~3년간의 투병생활을 하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아픈 몸과 마음을 함께 위로받고 지지받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자의 손을 잡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재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씩씩하게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볼 때면 더욱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은 마음과 공간의 제한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함께 들곤 합니다.

아이가 미술 또는 놀이치료를 받는 시간에 보호자분들은 회의실 작은 소파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데 이 모습을 볼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더 나은 공간으로 이사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센터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고, 2년간의 모금활동에 함께 해주신 많은 후원자들 덕분에 소아암센터의 신축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인터넷 부동산을 검색하고 틈틈이 다리를 팔아 여기저기를 다녔던 기억이 이제는 고생보다는 시간이란 물감으로 채색된 그림처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지하철역 인근,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출구 쪽으로….

어린 환아를 데리고 소아암센터로 올 부모님들의 걸음을 생각하며

혜화동 로터리를 넘어 성북동이 시작되는 혜화문까지 걸어가며 부동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일을 했지만 성북동으로 갈 일이 없었던 저는 성북동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처음 접한 동네는 마치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마을처럼 낯설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성북동 마을의 첫인상은 그렇게 포근하고 정겹게 느껴졌고, 재단의 절차와 검토를 통해 2015년 2월, 성북동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드디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성북동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이란 마을공동체 책자를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왔던 생활반경에 성북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북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소아암센터 건립 부지를 성북동으로 확정된 후 자연스럽게 성북동 마을과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2016년 4월이면 소아암센터 건립과 함께 성북동 마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의 새로운 둥지가 될 성북동이 서울의 25개의 동 중의 하나가 아닌 특별한 의미와 공간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 - 희망과 나눔으로 만날게요

소아암 가족들의 안식처가 될 성북동 센터의 이름은 ‘나눔소아암센터’입니다. 요즘은 건축사와 함께 설계를 위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특성상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은 환아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 심리치료 및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고 독립적인 공간, 보호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건축사와 함께 행복한 그림을 그려보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단지 이웃이 아닌 이웃사촌이라 표현합니다. 이웃사촌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웃사촌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저는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시골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이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란 고장에서는 이웃 중에 진짜 친척도 있었지만 이웃집의 아이가 사촌 같은 친구였고, 그의 어머니는 내 고모나 이모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나눔소아암센터를 신축하여 성북동 사람들과 이웃사촌이 되고자 합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나눔소아암센터가 새롭게 시작될 2016년 봄날, 성북동 사람들이 소아암 가족들을 이웃사촌으로서 기쁘게 맞아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희망과 나눔도 함께 만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

-
서선원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신축하는 성북동의 ‘나눔소아암센터’(성북동1가 35-16/성북로 5길 9-14)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치유와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투병으로 힘든 환아, 보호자, 형제자매들에게 심리치료(미술, 놀이)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나을 수 있다는 마음,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담아 ‘나눔’이라 이름 지었다.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손거부

상허 이태준의 단편 <손거부>를 소개하며

우리 성북동을 연고지로 삼았던 소설가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쉽게 상허 이태준을 거명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월북 작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사라져버린 작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번 호를 통해 그의 작품을 접할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뜻 깊다 생각되어 그의 단편 하나를 소개한다.

이왕이면 당시 성북동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소설 <손거부>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발표당시(1935년)의 성북동의 풍광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성북동이 행정 구역상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당시 성북동에서는 있는 사람과 개천가에 무허가로 집을 만들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이 발표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성북동은 서울로 편입되고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후유증으로 성북동은 한동안 반목의 길을 걷기도 했다. 산동네 가난하지만 어울려 행복을 일구며 살아가는 북정 마을을 똥골이라 비하하기도 했고, 돈 많은 성북동 마님 댁이 모여 살던 동리를 도둑골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반목과 질시의 세월이 이제는 재개발 반대와 추진이라는 또 다른 상황과 맞물려 있다.

〈손거부〉에는 성북동천 독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초기 성북동의 풍경과 함께, 성북초등학교 썸으로 짐작되는 학교의 이야기 등 성북동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성북동의 옛 모습과 함께 행복한 성북동의 미래를 꿈꾸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편집부〉

손거부

이 태 준

손서방도 성북동에서는 꽤 인기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혼인이거나 초상이거나 집터 닦는 데거나 우물 파는 데거나, 하다 못해 뉘 집 아이가 넘어져 다쳐 가지고 떠들썩하는 데라도, 손 서방이 아니 나서는 데는 별로 없다. 일정한 직업도 없지만, 천성이 터벌터벌 하여서 남의 말참례하기를 좋아하고 아무한테나 허튼소리를 잘 걸다가 때로는 당치 않는 구설도 듣는 수가 더러 있지만, 아무튼지 떠들썩하는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손 서방이다. 그래 자기도 어디서 문소리 한 번만 크게 들려와도 이내 그리로 달려가는 버릇이거니와 저쪽에서들도 혼상 간에 마당이 좀 왁자해져야 될 일이 벌어진 집에서는 으레 손 서방을 찾아다니며 데려간다.

그래도 웬일인지 한 번도 술은 취해서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또 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 사람과 떠들다가도 안면이 있는 듯한 사람만 지나가면 으레 획 돌아서 깍듯이 인사하는 것도 그의 특성이 다. 나더러도 그리 친하기 전부터 아침이면 으레,

“지금 사진협쇼?”

저녁이면 으레,

“이제 나오십쇼.”

하는 것이다.

작년인데 그때가 봄인지 첫여름인지는 잊었지만 늘 지나다니기만 하던 손 서방이 하루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이 댁 선생님이 계신가, 원”

혼잣말처럼 지껄이면서 들어서는데 책이면 아마 사륙배판이나 되리

만한 널판대기 하나를 들고 왔다.

“어서 오시오.”

“네, 계시군요 마침.”

“그건 뭘니까?”

“네, 허”

그는 눈을 슴벅거리고 잠깐 히죽히죽 웃기만 하더니,

“문패 하나 써줍시사구 왔습니다.”

하였다.

“그류. 무슨 문패데 그렇게 큰데다 쓰우?”

“어디 제 이름만 씁니까? 벨걸 다 쓸걸입쇼 인제.”

“벨거라뇨?”

“거저 제가 써달란 대루만 써주십쇼.”

나는 더 물을 것도 없이 먹과 붓을 가지고 마루로 나와 그 판대기를 받아 들었다.

“그럼 뭐라고 쓰라고 볼루.”

“가만 집쇼”

그는 힐끗 문간 쪽을 돌아보더니 손을 획 둘러메면서 무슨 짐승을 내어쫓듯,

“가, 요런 망할 것들이”

하였다. 보니까, 다른 때도 늘 그의 꿈무늬에 줄줄 따라다니던 그의 두 아들이었다. 한 녀석의 얼굴이 쑥 나왔다가 코를 훌쩍하고 움츠리면 다른 한 녀석의 것이 또 쑥 나왔다가 그렇게 하고 움츠렸다.

“아이들이 온 게로구려.”

“원 망할 새끼들이 똥 누러 갈 새 없이 쫓아댕깁니다 그려.”

“가만 두,그러문 어떠우. 어서 들어오래우.”

하니까 그는 점잖게 “그럼 들어와.”

하고 혀를 채었다. 들어오는 것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열 살쯤 되어

보이고 하나는 대여섯 살 돼 보이는데, 눈썹이 적고 눈이 귀리눈이요 입만 매기처럼 넓직한 것이 히죽대는 것서건 똑 저희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그래 뭐라고 쓰라우?”

“첫번엔 성북동을 써야겠습죠?”

“글쎄요. 그러나 번지는 따루 써 붙이지 았우? 그리고 호주의 이름만 크게 쓰지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아놀시다. 거 따루따루 성가십쥬. 모두 한테 쓰시구 아주 남자가 몇이요 여자가 몇이요 장자엔 누구요 차자엔 누구라구 다 써 주십쇼. 그레야 만약에 순포막서 호구 조살 와두 여러 말이 없이 간단 말씀야요.”

“거 그릴 듯 허우 그레 이렇게 큼직한 걸 가져왔구려.”

“그러믄요.”

하고 그는 코를 벌롱거리며 그 귀리눈의 저희 작은 아들의 볼기짝을 투덕투덕거리었다.

나는 이런 문패를 처음 써볼 뿐만 아니라 호구 조사 오는 순사한테 방패막이로 한다는 그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그의 어리석함에 일종의 취미도 느꼈다. 우선 첫머리엔 ‘고양군 숭일면 성북리’라 쓰고

“거기가 몇 번지요?” 물었다.

“번지 그까짓 안 쓰면 어떻습니까?”

“왜 안 쓴단 말요? 아, 장자, 차자 이름을 다 쓴다면서 정작 번질 안 쓰면 되우?”

“우렁 아직 번지 없답니다.”

“번지가 없다뇨?”

“그게 개천독에다 진 집입쥬. 이를테면 국유집쥬.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레 인제 면에서 나와 번질 매겨 주기 전엔 아직 모릅니다.”

“글세, 그렇다면 몰라두 호준 당신요?”

“네, 호주라고 쓰시구 그 밑에단 손거부라고 쓰시는데 손나라 손자

클 거 부자 부 그렇습죠.”
 “이름이 아주 배부르구려.”
 “그래두 배가 고프 때가 많아 걱정이랍니다.”
 해서 우리는 같이 웃었다.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호주’를 쓰고 ‘손거부’를 썼다.
 “그럼 장자를 쓰기 전에 손서방 부인부터 쓰는 게 옳지 않우?”
 “그까짓 건 써 뭘 합니까?”
 “그까짓 거라뇨? 부인은 식구가 아뇨?”
 “헤, 쓰실 것 없죠. 그까짓 에펜네가 사람 값에 갑니까, 어디”
 “예, 여보, 그래두 부인이 있길래 저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소? 부인 성씨가 뭐요, 이름서건?”
 “거 뭐, 쓰실 것 없עד우요, 이름이 뭔지두 여태껏 이십 년을 살아야 모릅죠.”하고 삼부자가 다 히죽거리고 웃었다.
 “그럼, 부인은 빼구 장자엔 이름이 뭐요?”
 “이 녀석인데 대성이랍니다.”
 “큰 대허구 이를 성자요?”
 “네.”
 “또 차자엔? 재요?”
 “네, 복성이랍니다.”
 “복 복자 이를 성자?”
 “네.”
 “거 이름이 모두 훌륭허우.”
 “저 아래 구장님이 지셨답니다.”
 “참 잘 지셨소.”
 “헤!”
 하고 손서방은 침을 뱉더니,

“어디 이름대루 갑니까? 저두 이름대루 됐으면 부릴 게 없게요.”
 하였다.
 “인제 정말 거부 될 날이 있을지 아우.”
 “틀렸습니다. 싹이 노랬는걸입쇼.”
 “왜요? 인제 별문 되지 이담엔 남자가 몇이구 여자가 몇이라구 쓰랬죠?”
 “네, 남이 우리 삼부자 알려 삼잉, 여가 일이라 하십쇼.”
 “딸은 없구려.”
 “하나 있다 잃었답니다.”
 “거 고명딸이 될걸 잃었구려.”
 “잘 죽었습죠. 딸 자식이란 제 돈파 제 지체가 있구 말이 좀 천협니까? 어떤 녀석이 제 자식을 갈보나 창기루 아 팔구퍼 팔겠습니까? 돈과 지체 없다 보니 그리 되는 겁죠.”
 “그렇게 보면 참 딸자식이 천하긴 허우, 땀은”
 “아, 그럼요, 이런 사내자식들야 팔아먹으랴 팔아먹을 수가 있나 말썬야요? 그리게 예로부터 아들 아들 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또 아들이 기특한 듯 두 녀석의 노랗다 못해 빨간 머리를 한 손으로 하나씩 쓰다듬었다.
 “꽤 아이들을 귀애하는구려?”
 “그럼. 내가 뭐 천량이 남과 같이 있습니까, 일가친척이 있길 험니까. 그저 이 녀석들 기르는 재미죠.”
 “자, 다 썼수. 한번 읽으리까?”
 “네.”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호주 손거부, 장자 대성, 차자 복성 남 삼, 여 일, 그러우. 됐수?”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도합은 안 매기십니까?”
 “도합이라뇨?”

“인구가 도합에 사 인이라구요.”

나는 다시 붓에 먹을 찍었다.

“인구라구? 식구라는 게 좋지 않겠소?”

“인구가 도합 사 인이라 하십쇼.”

그가 쓰라는 대로 ‘인구 도합 사 인’까지 마저 써주었다.

그 다음부터 손서방은 일이 있건 없건 우리 집에 자주 들렀다.

“이달 ×× 날이 청결입니다. 아십쇼?”

또, “이달 ××날 요 아래 ××학교서 우두 넣는답니다. 아십니까?”

이런 소식을 그는 동네 소임보다도 더 빠르게 일러 주었고,

“저 건너 살구나루 배기터가 매평 팔 원석에 팔렸답니다.”

혹은 “요 너머 논꼴서 지난 밤에 도적이 텅겼세요. 소문을 들으셨세요.”

이런 것도 일부러 찾아와 일러 주곤 하였다.

한번은 오더니,

“오늘은 뭐 여쭙 드릴 게 있어 온 게 아니라 좀 선생님과 의논할 게 있어 왔습니다.” 하였다.

“의논할 게 있어요? 여기 와 앉으슈.”

“네.” 역시 꿈무늬를 따라 들어오는 두 아들 중에 큰 녀석을 가리키면서,

“아, 이 녀석이 제법이란 말입니다. 아마 애비보단 날라는가 봅니다.”

하였다.

“나야지. 못해 쓰우.”

“아, 학교에 자주 다니겠습니까그려. 거 보내야 옳겠습쇼?”

“옳구 여부가 있수. 늦었지요.”

“허긴 이 세상에 팔셀 안 받구 살랴문 공부에 있어야겠드군요

그래 요 아래 ××학교에 가 사정을 했더니 내일 학생될 아일 데리구 오라구 허드군요.”

“거, 잘됐수.”

“공부시키는 게 여불없이 좋은 일입쇼?”

“아, 글쎄 으레 시켜야 할 게죠. 여복한 사람이 자식을 가리키지 못허우.”

“그럼 됐습니다 좀 어정쩡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구 헐랴구 왔습쇼.”

그 이튿날 아침인데 손서방은 동저고릿바람이나 깨끗이 빨아 다린 것을 입고 학교에 가는 길이라고 우리 집에 들렀다.

“선생님? 황송합니다만 현 모자 있으시면 잠깐 좀 빌리십시오.”

“쓰구 가시게?”

“네.”

“두루매기두 없어요?”

“없으면 대습니까? 거저 맨머리바람으로 애비 되는 게 학교에 드나들면 자식의 기를 꺾어놓는 거란 말씀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었수. 내 모자 쓰구 갔다 오.”

그는 골이 커서 그런지 자리가 잡히지 않아 그런지 떠들썩하게 엮혀지는 내 소프트웨어를 쓰고 기운이 나서 나갔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가는 그의 두 아들녀석들부터 쳐다보고 서로 꺾꺾 찌르며 웃었다.

그 뒤부터 대성이 녀석은 날마다 학교에 간담시고 책보를 끼고 지나갔고 손서방은 전보다는 좀 뜸하게 보이었다.

“웬일유? 요즘은 잘 만날 수 없으니?”

한번은 물으니,

“아, 공부 하나 시키는 게 전과 달습니다그려. 책 사 주, 월사금 주 허구 돈을 달랍쇼. 또 다 굶어두 학교에 갈 놈야 어떻게 굶집니까? 그래 진일 마른 일 막 쫓아댕깁니다.”

하면서 횡하니 달아났다. 한번은 손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올라왔다.

“아, 웬일유?”

“채석장서 일허다 돌에 짓찧습니다.”

“대단허우.”

“엄지손가락 하나 아휴 아마 못쓰게 됐나 봅시다.”

그 후 얼마 안 있어서다. 아침에 산보삼아 뒷산으로 올라갔더니 미륵
당 쪽 골짜구니에서 웬 울음 소리가 났다. 아이의 울음 소리인데 엄살
하는 것을 보아 매를 맞는 소리였다.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
니 손서방이 저희 큰 아들애를 끌고 와서 때리는 것이었다.

“이 이놈 새끼 애빈 먹을 걸 못 먹구 가리키 가리켜 보
는데 이놈 새끼, 뭐 학교엔 안 가구 진고개루만 싸댕겨”

목에 핏대가 일어난 손서방은 회초리라기보다 몽둥이에 가까운 나무
로 아들을 못 달아나게 두 손을 묶어 쥐고 등덜미를 내려 패었다. 그
러는데 이내 어디선지 태중이라도 만삭에 가까운 듯한 그의 아내가
무거운 걸음을 비칠거리며 달려들었다.

“글쎄, 왜 아일 꺾이려 들우? 개가 잘못했수, 어디? 학교서 오
지 말랬단 걸 어떡허우 그럼”

아들이 이내 어미에게 휩싸자 손서방은 더 때릴 수가 없어 침을 배알
고 매를 놓았다.

“학교서 왜 오지 말래? 아, 월사금을 안 냈나 후원회빌 안 냈
나 그놈의 새끼 핑계지”

“핑계가 뭐야 마전집 아이가 와 그러는데 선생 말쑈 못 알아
듣는대구 오지 말랬다구 그리든걸 그래 벨눔의 학교 다 봤
어 못 알아들으문 알아듣두록 가르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날 학교 사람 하나를 만나 이 대성의 이야기를 물었더니,
“저능아영. 당최 것두 웬만해야 가르켜먹지 앓어요. 아주 쇠대가린
걸”

며칠 뒤에 손서방이 그 문패, 그의 말대로 벨걸 다 쓴 문패를 다시 떼어
들고 왔다. 역시 그의 뒤엔 대성이 복성이가 줄레줄레 따라들어왔다.

“어서 오.”

“네 저 그제 아침에 아들 또 하나 낳습니다.”

“저런! 순산하셨소?”

“네, 국밥 잘 먹습니다”

“참 반가우.”

“이름 하나 지어 주십쇼. 아주 문패에다두 써주십사구 이렇게 떼들구
왔습쇼.”

“이름요?”

“네 대성이 복성이허구 성자가 항렬자처럼 됐으니 무슨 성이
루 하나 저 주십시오.”

“구장님더러 마저 지시래지요?”

“요즘 안 계십답니다. 아, 아무 자나 좋은 자루 하나 지십쇼그려.”

“아무 자나 좋은 자? 손서방이 셋째아들은 뭘 되길 바라우?”

“어디 이름대루 뵈니까?”

“그래두”

그는 잠깐 면산을 쳐다보더니,

“이놈은 글을 잘해서 국록을 좀 먹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국록? 그럼 녹자루 합시다. 복 녹자가 있으니 손녹성이라, 거 참 괜
찮우.”

“녹성이 좋겠습쇼. 손녹생이라 부르기두 십상 좋은 텡
쇼 그럼 삼자에 녹성이라구 또 써넣야겠습쇼.”

“그럼시다. 인구 수도 하나 또 늘구.”

나는 먹과 붓을 내어 그 문패에다 ‘삼자 녹성’을 써 넣고 ‘인구 도합
사 인’에는 ‘오 인’으로 고쳐 주었다. 그리고 먹장난을 하려는 대성이
더러,

“이놈, 왜 학교엔 안 댕겨?”

하였더니 손서방이, “참!”하고 놀라면서,
“말씀드리구 가자던 걸 잊을 뻔했군요 그 녀석 공부 안 시키겠
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내가 ‘왜 안 시키느냐’고 묻기 전에 이내 말을 계속하
였다.

“뭐, 대학교까지나 시켜야지, 그렇지 않군 무슨 회사나 상점 고씨끼리
밖에 못 된대니 그걸 누가 시킵니까. 막벌이 해먹는 게 마음 편찮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학교서두 자꾸 데릴러 오구 저두 그냥 땡기겠단
걸 애저녁에 고만두라구 말렸습니다.”

“글쎄요”

나는 대성이가 산에서 매맞던 것을 보았고 그 학교 선생에게서 들은
말도 있어서 손서방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아나 그냥 곧이듣는 체할 수
밖에 없었다.

“녹생이 녹생이 자꾸 불러야 입에 오르지. 헤 고맙습니다.”

손서방은 아들 이름 하나가 더 는 문패를 들고 두 아들의 앞을 서서
우쭐령거리며 나갔다. 나가다 말고 다시 돌아서더니,

“참 모레가 기 다는 날이랍쥬. 그 날은 기 달었나 안 달었나 조살 나
온답니다. 기 꼭 다십시오. 괜히”하고 나갔다.

(신동아 1935. 11 발표)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천’과 함께 할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 마을 공동체 ‘성북동천’은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성북동천’은 마을 잡지 간행과 마을 탐방, 마을 학교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역 주민, 지역 내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곳

이메일.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10-2366-6238 (김기민)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체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간 연대를 위한 활
동을 하고 있다. 성북동 주민, 17717, 스페이스오뉴월, 동네공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
유산기금, 희망제작소가 함께 하고 있다.

마을 잡지는 마을의 힘으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마을의 언론 매체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으로 잡지를 간행해 왔습니다. 지원은 상시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잡지의 지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자발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저희 마을 잡지를 후원하는 광고를 받습니다.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은행, 마을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가게의 광고를 신습니다. 또한 의견이나 소개 광고도 좋습니다.

저희 잡지의 지향인 마을을 함께 가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생각이 담긴 어떤 홍보와 광고도 환영합니다.

마을 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가꾸는 파스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문의

이메일.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10-2366-6238 (김기민)

*성북동 맛집 <디미방>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편집 후기

천성이 게을러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다 늦게 이게 무슨 복인가 싶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식당 일도 버거운데 이젠 마을잡지 편집장이라니. 그래도 그동안 혼자 수고해 오신 최 선생님을 생각하면 막무가내로 거절할 수만 없는 일이다. 윤번제로 한다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덜컥 하겠다고 허락하고 말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체처럼 한 조직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과는 거리가 멀다. 각자 하는 생업을 꾸려 나가며 틈틈이 마을 잡지 일을 해야 하니 늘 뒤로 미루게 된다. 아니 나부터도 그렇다.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서두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치인 듯하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잡지의 가로수 이야기를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평소 우리 땅을 사랑하고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땅에 나고 자라는 식물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애향심의 발로라고 믿어왔다. 즉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 줄 때 그 나무와 풀은 살아서 우리 앞에 설 것이다.

또 항상 보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성북동길에 있는 가로수의 의미와 그 이름을 알아가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성북동에서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감나무는 환경에 민감하다는 사실도 이번 호를 편집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청정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수종이란단. 아! 결국 저기 저렇게 서있는 감나무가 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큼 공기가 맑은 성북동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말이다.

상허 이태준의 작품을 소개하며 새롭게 말을 배우는 기쁨도 깨닫게 되었다. 인사말로 사용되는 “사진합쇼?”라는 단어가 오자처럼 보였

다. 그런데 이 사진(仕進)이라는 말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 정해진 시간
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글을 읽을 때
모르는 것이 나오면 으레 오자라거나 잘못된 표현이겠거니 하는 나의
문제점을 자인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길상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시와의 노랫말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니 가수가 직접 악보를 써 보내 주었으니 이보
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쉽게 포기하려던 것을 전임 편집장이 나서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동네 잡지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
다. 그래도 인터넷에서 그녀의 노래를 찾아 직접 감상해 보는 것도 좋
겠다 싶다.

조용히 읊조리듯 노래하는 그 분위기는 길상사를 잘 표현하고 있다.
노랫말처럼 그렇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오후에도
나무사이로 보인 하늘
아름다운 것들을

가만히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무언가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 ...』

오늘의 성북동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
한 사람을 다루었다. 이른 아침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온 종일 슈퍼에
서 각 가정으로 쇼핑한 물건들을 배달한다. 늘 홈 베이스 마켓에 들어
서면 크게 인사하는 이가 그 사람이다.

또 성북동에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두 분의 이야기도 담았고, 우리 동
네 식구로 새롭게 찾아온 NGO 단체도 등장한다.

특별히 우리 성북동 마을의 허파 역할을 하며 맑은 공기를 가져다
주는 북악산 산책로도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자연환경과 산책로
가 있어 우리 성북동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특집으로 연재하고 있는 골목길 기행 세 번째는 동
구여중고 주변을 탐방하는 코스로 꾸며 봤다. 때 늦게 해외 여행길에
서 돌아와 바쁜 틈을 내 글을 써준 필자와 성북동천 대표로 계신 화
가의 그림이 골목길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워할 초등학교 시절을 회고하게 만드는 성북초등학
교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마을잡지 5호는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고심에 고심을 하여 완성된 디자인으로 우리 잡지 5호는 예쁘고 빛나
는 얼굴까지 세상을 향해 드러내게 되었다.

다 같이 내 일처럼 헌신해 주신 여러 편집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진하)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이 곳이 있어 참 좋다.
성북동 디미방에서

사진/글 김선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5호 <비매품>

2015년 7월 31일 발행

편집 | 김현주 김홍식 박진하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디자인·사진 | 김선문 010 4441 7717
펴낸곳 | 성북동천

성북동천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12-6 동네공간

010. 2366. 6238

